朝鮮日報 夕刊 (金) 四日 本紙朝夕刊十二頁

西班牙政府軍이 伊太利人虐殺?
自衛的手段으로軍艦을增派
伊太利政府當局發表

【바르셀로나三日發同盟】바르셀로나在留伊太利人 파사·네르라는 一日 激昂한 人民戰線分子에게 虐殺되엿다고한다 右에關하야 伊太利政府當局은 三日 右情報를 接受하고 如左한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바르셀로나市在留 파사·네르라는 二日 西班牙政府軍에게 虐殺되엇다 當時의 事情은 아직 詳細히 判明되지안엇스나 理由는 同人이 單靑을 所持하고잇섯다는데 不過하다 政府軍의 慘虐非道는 言語道斷이다 伊太利政府는 바르셀로나駐箚領事를 通하야 카탈로니自治州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는데 西班牙內亂勃發以來 이미 六名의 伊太利人이 虐殺되어 單純한 抗議로서는 到底히 居留民保護의 目的을 達成할수업다 伊太利政府는 이미 바르셀로나近海에 巡洋艦一隻을 派遣하엿는데 다시 軍艦을 增派하야 自衛手段을 講究할方針이다

蘇匈芬三國도 不干涉委에贊意

【倫敦三日發同盟】蘇聯邦, 匈牙利, 芬蘭三國政府는 三日 英國政府에 對하야 西班牙內亂不干涉調整委員會案에 贊成이란 旨를 正式通達하엿다 獨逸政府의 同意가 잇는대로 委員會는 來週初 初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다

西班牙駐箚 伊大使館移轉

【羅馬三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西班牙內亂의 推移에 應하야 三日 마드리드駐箚大使館을 地中海岸에잇는 알칸테에 移轉하기로 決定하엿다

駐獨英大使 獨逸回答을督促

【伯林三日發同盟】伯林駐箚英國大使는 本國의 訓令에 基하야 三日 西班牙內亂不干涉調整委員會案에 關하야 獨逸政府의 回答을 促하얏다 確聞하건대 獨逸政府는 原則的으로 委員會案에 異議는업스나 技術上 依然難點을 남기고잇다고보인다 關係當局은 目下 자조 協議中이나 히틀러總統의 方針은 아직 判明되지안허 最後的決定까지에는 相當한 時日을 要할모양이다

佛西國境에激戰
宛然『死의街』出現

【베호비아三日發同盟】베호비아及이룬奪取戰은 三日早朝부터 猛烈을 極하야 政府軍은 새로 山砲及七十五미리野砲를 繼備한 이룬駐屯砲兵部隊를 出動하야 盛히 산·마르시아一帶의 高地에 據하야 叛軍本據를 砲擊을 하고 잇는대 이에 對하야 叛軍도 또 베호비아戰線의 高地에 機關銃隊를 增派하야 베호비아市政府軍에 猛擊을 加하엿다 兩軍의 交戰은 午後에들어서 激烈을 極하야 特히 叛軍飛行機는 이룬市의 政府軍根據地에 空爆을 敢行하고 地上部隊의 攻擊과 아울러 政府軍에 多大한損害를 與한 模樣이다 이空爆及叛軍地上部隊의 十字砲火를 입은 산마르시아이룬間의 석양工場은 곳發火하야 火炎이 衝天하야 悽慘을 極하엿다 叛軍飛行機는 다시 夕陽에 國境펜다라비아에 出動하야 地上砲兵部隊와 協力하야 同地方及 이룬間의 政府軍을 爆擊하야 到處에火炎을 發하엿다 산세바스티안의 政府軍은 베호비아이룬方面의 戰況에 鑑하야 快速航空隊를 出動하야 叛軍의後背로부터爆擊을 加하엿는데 叛軍飛行機는 政府空軍의 出動에 어느듯 자최를 감추고잇다 目下 베호비아人民戰線所屬義勇軍은 正規兵과 協力하야 手留彈을 投하면서 悲壯한 肉彈戰을 展開하야 同市를 死守하고잇는데 叛軍은 베호비아戰線에 戰果를 거

…하는中이라 베호비아陷落은 目睫에 切迫되엇다고보힌다 二日間의 激戰으로 戰死者는 續出하야 政府後援部隊는 이를 收容하고 이룬方面에 避難하고잇다 住民은 거의 佛國에 避難을 了하고 政府軍六十名이 國境內에 逃走하엿는데 佛國官憲은 곳 武裝을 解除하엿다

佐藤團長携帶 獨總統의贈物 蘇官憲沒收說

【伯林三日發同盟】올림픽遠征軍應援團長東京市會議員佐藤榮志氏는 히틀러總統과 히틀러靑年團으로부터 寄贈바든 히틀러總統의 署名入寫眞及 短劍을 携帶하고 西伯利亞鐵道經由로 一路歸國의 途에 올랏는데 途中莫斯科에 蘇聯官憲에게 不法하게도 右贈物一切를 沒收당하엿다고 傳한다

獨逸言論界激昂

【伯林三日發同盟】蘇聯官憲이 東京市會議員 佐藤榮志氏로부터 히틀러總統의 寫眞과 短劍을 沒收하엿다는 報道에 獨逸言論界는 極度로 激昂하야 三日紙上에서 各紙는 國際信義를 無視한 蘇聯政府의 不法行爲를 痛烈히 論難하엿다 特히 나치스第三帝國의 빗나는 히틀러의 寫眞과 히틀러靑年團寄贈의 短劍을 … 마이네 차이퉁紙는 가로되 蘇聯官憲이 佐藤榮志氏로부터 히틀러總統의 寫眞을 沒收하엿다는데 右寫眞은 올림픽大會에 際하야 히틀러總統이 友邦代表에게 贈呈한 記念品이다 그것을 蘇聯政府가 沒收하엿다는것은 動機如何에 不拘하고 無禮至極한것으로 獨逸의 權利를 無視하고 侵犯한것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張本人 佐藤氏談 『事情이다르다』

【熱海電話同盟】蘇波國境에서 蘇聯官憲에게 히틀러總統의 寫眞과 短劍을 沒收當하엿다고 傳하는 東京市會議員佐藤榮志氏는 歸國後熱海의 岡本旅館에서 滯在中인데 三日 同氏를訪問하니 獨逸의 輿論이 沸騰하고잇다는 報道에놀라서 『그것은 좀 事情에 틀리는 點이잇다』고 如左히 말하엿다

蘇波國境에서 沒收處分을 바든것은 伯林의 著名한 寫眞館으로부터 寄贈바든 히틀러總統의 日常生活의 寫眞과 獨逸의 最近國情을 記錄한 書籍數部와 獨逸의 新聞數紙이엇다 모다 조흔 記念物로가지고왓는데 무슨까닭으로 히틀러總統으로부터 寄贈바든것이라는 잘못이생겻는지 알수업스나 그것은 全然 誤報이다

트로츠키夫妻軟禁

【어네소롯세(諾威)二日發同盟】諾威政府는 二日 트로츠키氏同夫人을 오슬로를 떠난 五十키로의 스산드란 農村에 옮기고 同地에 軟禁하엿다

米商務省船舶局 商船擴先을企圖
今年度船舶助成金五億弗로 三百五十隻新建造

【華盛頓三日發同盟】米國商務省船舶局에서는 新設海事委員會에 提出할船舶國策에關한 報告를準備中인데 船舶局當局은三日商船隊强化를力說하야如左히述하엿다

米國商船의 大多數는 老朽하야 現時要求에 適應치 안는다 따라서 他國의 標準에 達하기 爲해서는 三百五十隻의 新船을建造할必要가잇다 海事委員會는 本年度船舶助成金 五億弗을使用하야 新船建造計畫實施에 着手할것으로 보이는데 商船隊擴充强化를 爲해서는民間과協力할必要가잇다

成都事件現地報告次 松村書記官歸國

【上海三日發同盟】松村書記官의 報告에 基하야 大使館에서 臨海外聯合協議의 結果 成都事件에 對應할 現地具體案이 決定되엇스므로 松村書記官은 右具體案을 携行하야 本省에 報告하는同時에 現地의 强硬意見을 具申하야 日本政府의 對國民政府交涉에 示唆할것으로보인다

【上海三日發同盟】三日夜 成都로부터歸滬한 松村書記官은 駐中官憲과協議한結果 四日朝 上海出帆의 長崎丸으로 歸國하기로 決定하얏다 本省到着後에는 直接 調査報告를 하는同時에 臨海外駐中官憲一致의 對策을 具申할터이다

『成都事件解決은 徹底的措置必要』
松村書記官이力說

【上海三日發同盟】松村書記官의 現地調査報告의結果 事件의 眞相을 正式으로 川越大使에게傳達되엇는데 松村書記官은 三日午後九時半 記者團과 會見하고 如左히 말하엿다

이미 新聞에 報道된 以外에 새로운 發見은 업섯스나 中國側官憲이 極力 責任을 回避하고 日本側調査에 對하야 保護에 籍口로 自由를 束縛하야 調査를 妨害한것은 重大問題이다 이미 銃殺하엿다고 稱하는 二名의 犯人供述書를 中國側에서 바더왓는데 다시 六名의犯人을 逮捕取調中이라고한다 日本側調査는 獨自의立場에서 行한것이므로 中國側이 如何히 詭辯을 弄하더라도 動搖되지 안는다 나는 本事件의 解決은 그重大性에 鑑하야 徹底的으로 行치안흐면안되다고 기피 잇는다 또 松村書記官은 政府에 對하야 犯人逮捕의 模樣, 現地의 狀況 中國側의不誠意 責任回避 調査妨害等에 關한 眞相을 詳細히 報告하고 日本政府의 立場을 强調할터이므로 現地一致의 意向은 事件의 重大性에 鑑하야 徹底的措置를 要望하고 事件을 單純한 外交調整의 基礎로 要求를 提出하는것가튼일이잇스면 中國側에 利用되어 日中國交打開의 將來에 惡影響을 及할것을 警戒하고잇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四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二十分 永田町官邸에서 開會하고 廣田首相以下 全閣僚가 出席하야 爲先 永田拓相으로부터 過般 朝鮮總督府에서 行한 東亞日報의 發行停止에 關하야 同紙는 孫, 南兩選手入賞을 契機로 全朝鮮에 民族的意識을 昂揚하야 再三注意를 發햇는데도 不拘하고 孫選手의 胸間에잇는 日章旗마크를 抹消하고 紙上에 揭載하는等 不穩한 點이 잇서 드듸어 發行停止에 處分하엿다는 旨의 報告가 잇슨다음 有田外相으로부터 成都事件에 關하야 別項과가티 詳細報告를 하고 또 北海外三省間에 關해서도 說明을 行한後 本事件에 對한 政府의 交涉方針과 川越大使에 對한 訓令을 決定하고 또 將來重大訓令을 決定하고 三省間에 緊密한 聯絡을 圖하야 日本政府의 對中方針決定에 關하야 各閣僚의 質疑應答이 잇슨後 十一時半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福江滿好氏(國勢調理事官)東京出張中 四日朝歸任

八面鋒

◇聯盟은 이미 死體가 다되엇이라고, 伊太利政府가 그改造工作을 冷笑.

◇同感, 同感. 더욱히 伊太利의 處地로는 眼中에 無베르사이유體制가 當然.

◇佛蘇相互援助條約에 成功한 餘勢를타서 佛波軍事同盟運動이 進展.

◇獨逸이 눈뜨고안저서 包圍政策을 그대로 容認할는지.

◇電力國營案은 從業者大會의 形式으로 反對의 소리가 노파젓다.

◇曰, 國防充實은 民營으로도 遂行할수잇다는것이, 그들의 내어세우는 標語.

災地視察마치고
總督, 總監對策披瀝

水害擴狀況視察次出張中이든 總督總監은 四日歸任하야 午前十一時半出入記者團과 會見하고 別項과 如한 水害視察談及應急對策에 對하야 말하엿다

南總督談

今般風水害는 想像한以上으로 慘害가 莫大하다 然이나 方今各道知事官吏警官 公共團體의 活動으로부터 先食料衣服의 藥等에 對한 用意 死傷者와 慰問假舍屋의 應急手當에 對하야 最善의 努力을 하고잇다 悲慘한水害狀況中에잇서 반가운 일은 傳染病이 아즉까지는 流行치안는것이다 三浪津에 赤痢患者가 數名發生하엿스나 隔離治療中인데 今後더 注意하여야겟다 自己는 非常時이니마치 非常한努力을하라고 各當業者에게 말하엿다 將來의 治山治水等의 計劃에 對하야 根本的으로 再檢討를 하야 恒久對策을 樹立하겟다 今回의 水害에잇서 幾多의 美談을 見聞하엿다 即 警官의 犧牲的行爲 水防團의 決死的努力 等이 各地에 非常히 만하엿다 各被害民이 可成的自力更生을 하려고 努力하고잇고 又當事者들도 此를 獎勵하고잇다 今回의天災에잇서 爲政者는 最善을 다하여겟지만 罹災民은 自力更生의努力과 精神의 緊張이 必要하다 災變에際하야 退嬰主義는 禁物이다 最善의 努力과 施設을하야 復興에 注力하야 차라리天災를 契機로 官民協力하야 一層努力하려고 好轉식힘이 必要하다 天皇 皇后兩陛下께압서는 第一次의 水災에 御軫念하셧고 다시實地로現地를 視察식히시고저 侍從을派遣하압시엇다 皇恩의 優渥無涯함에 感泣하엿다

言論界의 諸君도 通信交通이 杜絶한때에 各地에 出張하야 實況을報道하는等偉大한 努力에 深謝한다

大野總監談

水害對策에 對하야는 方今은 于先應急對策을 講究中인데 生産的救濟策을 應急實施하겟다는 豫備金의 範圍에서 支出할터이다

又洛東江其他各河川의 改修工事에 對한 再檢討도하되 地方의 實情을知悉할 人士를 參加식혀 組織體를 構成하엿는데 往年의 治水委員會가튼것을 둘러이다 恒久對策은 充分히 研究하야 可成的速히 具體化하도록하겟다

西機越境에 佛蘭西警戒

【베호비아發同盟】이룬, 산세바스티안의 政府軍은 베호비아이룬方面의 危急에 對하야 三日午後 快走航空機數臺를 出動하야 一帶의 叛軍根據地內에 들어가 佛國境內로부터 迂廻하야 國境低空飛行을 敢行하야 爆擊을加하엿다 佛國國境警察은 西班牙飛行機의 越境에 對하야 곳飛行機를 出動시켜 이를監視하얏는데 西班牙機는 얼마아니되어 산·세바스티안의 根據에 撤退하엿다 一方 叛軍의 越境이자 징으로 바스피레네縣知事마수以는 革命司令官몰라將軍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發하얏다 몰라將軍은 佛國領土侵犯을 反復치안토록 嚴戒하겟다는 言質을 嚴約하엿다

白頭山探險記

氷石조흔茂峰서 初夜의山中生活

㊁ 徐椿

茂峰은 俗稱, 거츨峰이라고도 한다. 農事洞서 八十里다. 此地는 露營地로는 가장 適合하다.

一、바로 소롱속이나 또는 林下가 아닌것
二、燃料用枯木이 豊富할것
三、飮料水가 잇슬것
四、地面이 濕하지 안흘것
五、바람을 强하게 맛지 안토록 地形이 되여잇슬것

等 다섯가지는 露營適地로서의 五大要件인바, 茂峰은 此五個要件을 조곰도 遺憾업시 具備한 데다.

첫재 露營地로 選擇된 이地點은 地形이 若干凹入하야 바람을 强하게 맛지안토록 되여잇고, 또한 山火에 依하야 數町步에 亘하는 面積이 全部 불에 타버린 故로 여기저기 枯木만 남어잇는 鬱蒼한 草原地帶로 되여잇다. 말하면 이 面積數町步의 地는 千里天坪의 密林속에서 좀처럼 볼수업는 露出地다. 따라서 燃料用枯木이 豊富하다. 先驅者도 亦是 此地를 擇하야 露營地를 삼엇든 關係로 枯木의 一部分은 찍어서 燃料에 供한 痕가 여기저기 남어 잇슴을 본다. 또한 地名에 峰字가 붓는것으로 보아 斷言할수 잇슬바와 가리 此地에는 奇花, 妖草, 灌木類가 茂盛해 잇스되 濕氣는 比較的 적은데다. 또豆滿江支流인지 或은 豆滿江 그物件인지는 仔細히 모르나 相當히 큰 溪谷水가 選擇地의 바로 北쪽을 西로부터 東으로 貫流하고잇슴。 飮料水도 豊富하다.

비록 이러케 좋은 地點을 擇하야 露營을 開始하는것이나, 이것이 露營으로는 처음이라, 露營第一日인 八月十日 茂峰에서의 一夜는 참으로 生來 처음으로 느끼는 異常한 感을 가지게되엿다.

行列의 最先頭에 섯든 關係로 모지 到着하야 橫倒한 枯木에 걸어 안저서 압흔 다리를 쉬여가면서 後列의 人馬가 次例로 到着하는것을 보고 잇다. 사람은 누구나 終日 비를 마저서 옷이 휘주근 한데다가 처날 八十里길에 부닥긴 다리를 줄줄 끌고 오는 樣은 마치 다敗軍之卒 가티보이엇다. 얼골에 生氣가 돌지 못하고 氣運이 하나도 업는 사람들이 젓는것이 아니라, 기다싯하하면서 채 오기도 前에 안즐자리를 찻는 氣色이 보이엇다.

이보다도 더 불상해 보이는것은 馱馬다. 사람에게는 行軍途中 每四十五分만에 小休가 잇고, 一日一次 點心時間에 大休가 잇지마는 말은 一日一次의 大休는 잇스되, 小休는 업다. 換言하면 點心時間에는 짐을 풀어노아주나, 小休時間에는 짐을 실른대로 그냥 세워둔다는 말이다. 오늘 하로ㅅ동안에도 사람은 小休, 大休를 合하야 여섯차례를 쉬엿스나, 馱馬는 點心時間에 한번밧게 쉬지 못한것이다. 馱馬가 萬若 말을 할수가 잇서서 사람에게 對하야 苦情을 말한다고 하면

『그래 당신들은 뷘몸으로 가면서도 小休, 大休를 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을 실여 노코도 休憩時間을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덜 준단말이오?』

라고할것이다. 終日을 두고 나제 한번밧게 못 쉬인 말들이 그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그래도 馬夫한데 如前한 채찍을 바더가면서 끌니워 오는 光景은 可憐하야 참아 보지 못할것이엇다.

到着까지에는 말이 사람보다 더 苦生햇스나, 到着後에는 말과 사람과는 處地가 뒤바꾸인다. 말은 짐을 싯고 단닐줄은 알되, 그는 나무 할줄도 모르고, 밥 지을줄도 모른다. 어느때나 巧妙는 拙之奴다. 사람은 이제부터는 나무를 해야 되고, 밥을 지어야 되고, 말에게 까지도 먹을것을 供給해야 된다.

말은 무거운 짐을 다 풀어노코서 一日之役은 이것으로 다 하엿다는 듯이 或은 꼬리를 치며, 或은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 한다.

이와 反對로 사람은 一邊은 도끼를 가지고 나무 찍으려를 간다, 一邊은 飯盒과 물통을 가지고 쌀 시쓰러를 간다, 一邊은 간조메(鑵詰)를 띄여서 밥찬 準備를 한다, 一邊은 木栅의 縛枝를 잘나서 저까락을 만든다, 一邊은 찍어온 나무를 통으로 드려싸코 화투ㅅ불을 놋느라, 等等 한참 奔走하다. 몹시 騷亂스럽다.

이런 때中에 團員中에 오직 두분이 잇서서 健康의 不如意로 表情하고 잇다. 第四班의 金相恒氏는 到着하자마자 惡寒이 來하다하야 馬夫에게 비를 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풀밧테 주저 안저서 부들부들 떨고 게시다. 第二班의 明東氏는 消化器系統에 故障이 생기어 人間世界의 말로하면 便所出入이 자조시다.

이두분의 이러한 光景을 볼때에 本團全體에 對하야 團長의 責任을 가진 나의 憂慮는 如干이 아니엇다. 今朝, 出發直前에 農事洞서 劉發默君이 病으로 떠러지고, 昨朝茂山서 出發直前에 鄭沫英君이 病으로 떠러젓는데, 이제 이 두분이 또 이러신다면 이것을 어떠케 하면 조흐냐? 는말이다. 더구나 鄭, 劉兩君은 人間世界에서 그러케 되엿스니까 돌녀 보낼수가 잇섯스나 이 茂峰서부터는 어떠한 病이 들니엇다고 할지라도 돌녀보낼수는 업다. 말에 실어 가지고라도 白頭山全道程六七日間을 다 돌라 단니다가 胞胎里로 나갈수 밧게업다. 最大 憂慮는 여기잇다.

(寫眞은 露營光景=徐椿撮)

◀訂正=前回第一段第四行中『豆滿江을 右便으로 끼고』의 右는 左의 誤。

醴泉痰藥
治風治痰 最高神方 前無後無
으로苦病을全滅합시다
(服用하는사람마다神奇하다고합니다)
定價 大 2·00 中 1·20 小 60
◎여기저기 결리고 꿈기자치 못하는 走馬痰에는
◎百藥이無効하야 고질된 가리가 鶴膝風에는
◎半身不隨로 不具者되는 中風에는
◎四肢가 뼈마듸고 시고 저리는 歷節風에는
◎內臟으로 가 이러저러 어는 痰腫에는
◎五十歲男女의 第一苦痛하는 痰嗽에는
◎全身上下로 돌면서 쑤시는 神經痛에는
◎百發百中인 醴泉痰藥만
醴泉痰藥製造本舖 日新堂京城支店 京城內需町六 振替京城七二二七

말더듬이 訥言研究矯正院 京城西界町九ノ六
恩給 鄭商會 京城府校洞町一六〇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三三五番 振替口座京城二三六〇番
돈벌기大王 リード式穀物膨脹機 製藥法傳授 五合의쌀이八升가되는쌀튀기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一九八番)
求職案內 文鍊堂
型錄進呈
醫學堂眼鏡店 檢眼 無料 眼科醫學博士洪錫厚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電話光化門二二八番
醫專病院眼科指定
養毛美髮의 第一이라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石樫農機製作所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電話福島四二二六番
朝報案內 店員 賣地 訂正
都賣散賣 鍍工衛生醫療處方 山崎仁壽堂 京城府鍾路四丁目 電車交叉点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참신과허신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速修英語講義錄 朝鮮文으로編輯된唯一의 京城府樂園町五五
東亞軍手製造家募集 朝鮮副業協會談 東亞手袋工場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電話本②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東光堂書店 文房具卸部 二學期學用品仕入은 至今부터 特히初開業諸位의便宜를圖하옵고迅速酬應함 目錄要二錢切手封入 各官廳學校銀行會社事務用品具備 京城府寬勳町 電光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貳一番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實踐簿記專修學院 第七回生徒募集
大田寫眞學院 第七回生徒募集 男女共學 十月一日開學 大田府

百萬罹災同胞의呼訴

咀呪할甘川의苦味 【一】

赤地에裸身뿐이다!

濁流에빠질때는거루라도붓드럿건만 惡夢은깻건만무엇을붓들고

慶北災地서 洪鍾仁記

일년에 한두차례의 수해를 겪는다는것은 이땅의 천후와지리로보아 면치못할일이엇다고는 하나 이번의 풍수해야 말로 도저히 상상도 못할고금에 업는 참변임은 더말할여지조차 업는것이다 그동안 매일가리 보도되는 수자는 삼사십명 혹은 사오십명식 한꺼번에 몰사하엿다는등 참담한 보도는 듯기에도 몸서리칠만큼 실로 청천벽력의 감을주고잇다 그간의 피해로게는 사망자만이 이천백여명, 행방불명이 일천삼백명, 부상자 오백명, 가옥의 전멸류실만호! 이런 참변을 보고 마음잇는자, 피가잇는자, 어찌안연히 잇슬때랴, 이때야말로 동포구제의 비상시이다 이제 재해현지의 참상을 실지답사한 본사긔자들의 현지보고서를 작성하야 동포의 설움을 논누며 그애타는 정상을 만분의일이라도 가추어 널리 구제의 손이 밋처야할 동포애의 의무감을 재촉하는바이다

녯날로부터 불란자최는 잇서一는하나 아무리 험한물이잇다고一는 도저히상상도 할수업섯든것一갑인것이다 보통수해라면 우리도몰가자최는업다는말도 잇기一해도 그처럼 자최가업스리라고一이 이번수해지를 답사하엿든딥一는 먼저그정상을 글로써서보도하는동시에 그실정을 소개하는 최선의 방법의하나로 사진을배이는것이잇스나 현지에가는 우리는 과연무엇을 사진박어야할것인가하는데 크게주저하지안을수업섯든것이다 바로내가 충창강은경북김천군구성면(金泉郡龜城面)에가서 피해가심하엿든 광명동(光明洞)에가니 과연군에보인다는 수해의참상이라고 남은것이 무엇인가를 찻즐바이 업섯든것이다

◇

눈에보인다는것은 산미를 씨처내리는 탁류와 한숨기가 급하게소리를지고잇스며 그도 거이 물이빠저나간모양이다 그저 다소이상스럽다고 생각되는것이 개벽의 모래밧이 생각밧게 넓지안혼가시펀든것뿐이다 물이갓다는집은 어데잇고 물이갓다는 논밧은 어데잇는가? 울지!저곳이 논밧이요 저곳이 동리이엇든가!고 혼자자문자답하기에 넘어도 어이업섯든것이다 적지(赤地)라말도잇스나적지가된달이 이에더합이잇스랴 동리도 논밧도 모래와감흙으로 폭삭더퍼버리어 멀리 까마케 보여는곳까지 적지안인백사장이 평탄하게 전개되엿것이다 동행한사진반긔자는 더욱히 당황하엿다 사진은 무엇을 백이는것이요?하고 재변의 참담함이 넘어도 험악함에 넘슬 일헛든것이다 글세! 사진은 무엇을 백이나!해당화 물큰 곳이나 피엇스면 『명사십리』라고 풍경사진으로나 만들까!

◇

그러면 이런 참변이 어떠케생기엇는가, 천위(天威)의 풍뢰이라고는하나 이야기는 듯기에도 무섭다, 백륙십여명의 사망자를 내인 김천군의 수해는 순전히 감천(甘川)때문이엇다 동이나 독으로 퍼붓는 비에 지동치듯하는 바람까지 겸하야 감천상류의 산협마다 물이넘치며 지반(地盤)이약해지는동에 물을바갈은 아름들이나무를 뿌리까지 뽑아져나가며 산이문허저 내리엇다 그래서 산이무너지며 물러내려오는 목재가 첩첩이 싸이며 여기저기서는 내목을 가루막어 모혔든 물이한꺼번에 터저나갈때마다 물은 두길세길의 놉히를가지고 감천량안을 휩지에 쓸어내린것이다 이가려하여 백리길이되는 감천을 생명선으로 거주를 하든 김천군내의 대부분의 농가는 그밤 이십일의 며시간동안에 전멸상태에 빠저고말든것이다

◇

날이밝으며 동천에 해가소삿다니 이천지의 광명을 어데서차즐수잇슬것이나 동리는간곳업다 집단는 어듸든나!내처자는 어데를갓느냐!엄마 압바는 어듸갓느냐!그러니 어찌잔말이가?! 내생명하나만이 남엇다기로니어것이무엇이신통하랴!눈물도 흘르는때가 잇는것이엇다 일조에 폐허가된동리에 모혀섯든 이부형 이형제들 누구하나 제정신을 가진자업고 우두커니 안저서 손을들래야 손을들곳이업는 이동포들!폭우후 경모마수의 그림자에 번뇌되여 러일장도 못잔 이네들의 눈은 벌거케충혈되엿슬뿐 눈에는 눈물도업다를 본능의생명의 근거인장답이라 한평도거두어 볼것업시된 이네들 집도 가족도잃어버린 이네들에게 살고시픈 용긔인들 무슨용심인들 그당장에야 무엇이잇스랴!

◇

그러나 천가지 정상이 딱하고만가지설움이 다 그러다고하나 그래나 살엇스니 살어야 할것이아니냐! 그래고한가지로 붓들어 살려야 할것이아니냐!오직뜨거운사랑된 정성이잇거든 동포된 사랑이 잇거던 붓들어 살려야 하다는것은 리재동포의 입을대신하야 현지에서 웨치는긔자의 애끗는 소리의 마즈막 것이엇다 (계속)

무덤속에根據둔 十名一團少年賊檢擧

數千圓의贓物은乘夜하야賣却

무덤속을 파고드러가서 그곳을 피난곳으로 삼고 도적질을 하다가 붓잡힌 그로소년절도단一지난나흔날 새벽네시쯤되여 부내룡산서원이 원정(元町)삼정목 이백오십번지 박순봉(朴舜鳳)의집 뒤깐구녕으로 웬소년여 드러가는것을보고 붓잡어다가 문초해본바 이는 경북안동(慶北安東)이라는 거지로 공덕정(孔德町)사십번지에잇는 공동묘지무덤을파고 그속에서살면서 제또래의 소년십여명을 모하가지고 러번기의가르데로만 도라다니며 금부치 옷가지 수천원어치를 훔처다가 그들이 주절하고잇는무덤속에다가 감추어두다음 밤을타서 영창사 고물상에게 팔어서는 극장, 식당가튼데서 모다 소비한것이라한다

僞名取食綻露

금제(金堤)출생의최병엽(崔炳曄)(二一)이는 얼마전에 서내모인쇄공장에서 해직되어 시내인사정(仁寺町)이백륙십팔번지 리문식당(里門食堂)에서 그전에단이던 공장종업원인 남의명의로 전표를쓰고 전후열한번에 수십원어치 음식을사가해먹고 드듸여사일저녁에 종로서원에게 붓들려와서 취조를밧고잇다

天氣豫報

概況 昨朝東中國海上에잇든 颱風은 漸漸北進하야 今朝에는 青島南海上約百粁되는곳에 잇는데 中心은七四〇粍로 지금가타서는 北北西로 進行하야 中國內陸에 드러갈模樣이다 어쩌면 北進하게될는지도 모르겟다 滿洲와 朝鮮은 흐렷스며 곳에딸하가랑비가오고 잇는데 颱風의影響은아직업다 日本內地도 흐린곳이만타

豫報 京城地方은今夜는 흐리며 가랑비가올것가트며 來日은天氣가 조아진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五、二
同 最低 二一、三
今朝最低 二一、一
今日正午 二六、八

運動競技

人氣沸騰한 拳鬪大會

第一夜의戰績續報

朝鮮基督敎青年會主催의第九回全朝鮮아마튜어 拳鬪選手權大會第一日은 三日午後七時十五分부터鍾路中央基督靑年會內體育館에서 열리바 이날 朝刊마감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今四日(第二日)은 午後八時부터 플라이級밴텀級의 準準決勝, 페더一級의 第一、二回戰及 라잇트級準準決勝과웰터一級 準準決勝戰을行하기로되엇다.

【第二回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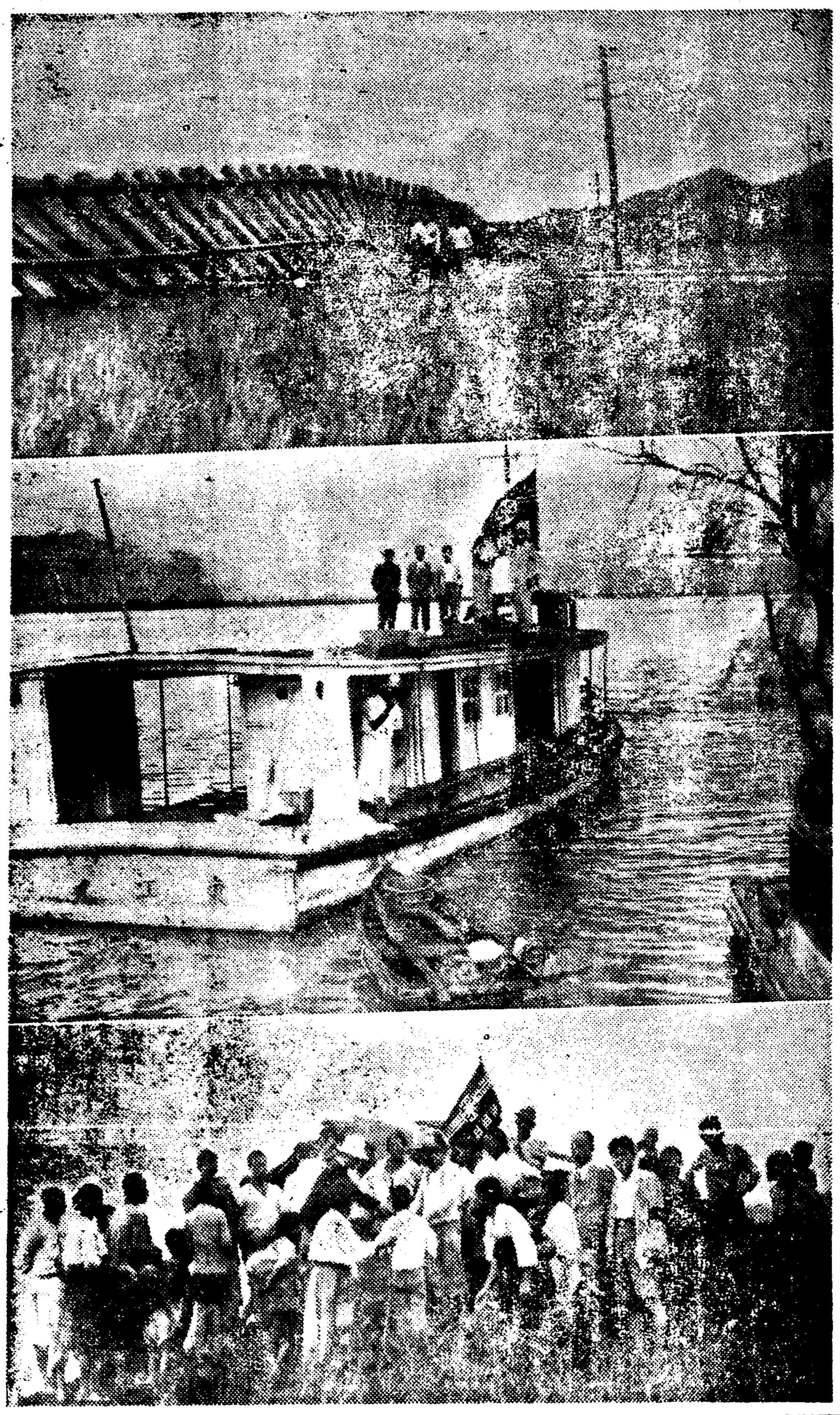
朴春根(東拳) 判定 張英植(無所屬)
金萬鎭(東拳) 判定 徐喜昌(京拳)
金仁鎬(青拳) 判定 金鍾昊(無所屬)
徐永祚(京拳) 判定 朴敬在(東拳)
金文煥(京拳) TKO 池龍淳(無所屬)
李敬烈(青拳) 判定 朴谷福(亞細)
姜周福(東拳) 判定 宋京燮(平壤)
鄭賢模(東拳) KO 梁敬燮(無所屬)
韓一男(青拳) 判定 金甲圭(大東)
鄭俊鉉(青拳) 判定 徐相泰(青拳)
朴春模(東拳) 棄 鞠啓鉉(潭陽)
金仁鎬(青拳) 判定 金萬鎭(東拳)
徐永祚(京拳) 棄 金文煥(京拳)

빤탐級 (第一回戰)

朴谷吉(亞細) 判定 朴殿鍚(無所屬)

救族의誠熱은灼灼 異鄕에서도翕然

學窓이고花巷이고너도나도할것업시 災地難境은寸刻이밧부다



……(사진은 우로부터 엿가락된 동해선、구포방면에서 재민구호에 활동하는 본사구호반)……

을축년(乙丑年) 수해라고하면 당시의 피해자는 말할것도업거니와 이야기를 드른사람도는 본사람으로하여 금이구동성으로 그참화의것을과 비절참절한 당시의광경을 들어조선에잇서서의 근래에업든 큰수화(水禍)라고 일캇기를 주저하지안헛다 그러나 금번남조선(南朝鮮)과 강원도(江原道)지방으로 업한 풍수해로인한 상처는을축년과비교하기에는 너모도크다 한번도아니고 두번세번씩사히도 업시 멧친수마(水魔)의 발자최 가마귀의 깃드릴곳조차 업시된 폐허 이곳에울고잇는 동포가 백만으로 세이게되다니 이들이입이 바든팔천만원의 손해는 고만두고라도 또는 귀한생명을갑업시 빼앗긴 이천여명의 고혼조차 이러버리고 만다하여도백만의 굼주리고 헐버슨 사람들에게는『한숫가락의쌀 한벌의옷이라도조타』우리는 이말을 붉으지즈지 이미오랏스며 그리하야 반도강산 방방곡곡에서 『우리들의리재민을 구하자』고 부르지즌지도이미오래다 우리는련일해내 해외동포로부터 눈물의 의연금이모하고잇다는것을 독자에게루루히보도하여 왓거니와 사일도 역시이역(異域)공장에서 푼푼히 떨어모흔돈을 중학생소학생들의 애끈는 하소로보내는 성금(誠金)몸은 회류향에 잇지마는우리거레를 구하여야 겟다는가상한 마음으로 본사에기탁 하여온것이싸히고 싸혀다음과갓다

▲現金拾圓 神戶市灘區味泥南谷五九 宮下刺繡工場職工親睦會一同
▲現金五圓 某中學生
▲現金五拾錢 靈岩普通學校二學年 無名生
▲現金五圓 鎭南浦東一商店員一同
▲現金五圓 京城茶屋町一〇 李明淑
▲現金五拾圓 貫鐵町一六五 柳錦桃 敎義町七五의二 崔錦蘭 貫鐵町一二八의八 姜炳花 淸進町一七三 都月仙 茶屋町一二六 朴美香 以上五名
▲現金壹百圓 柳功茂
▲現金參拾圓 韓學洙
▲現金貳拾圓 韓澤洙
▲現金五圓
金百圓 淸州華成館 盧白麟
市內長橋町四五 李鍾奭
金五十圓 市內鍾路三丁目 孫鍾洙

現金四十圓과 廣木十五疋 楡岾寺布敎所

시내 사간정(司諫町)에잇는 대본산 금강산유점사 경성포교소(大本山金剛山楡岾寺京城布敎所)에서는 삼남일대의 수해를당한 리재민을위하야 광목 열다섯필(서가와가에엇지웠)과 현금사십원을 모아서 보내달라고 사일 아침에 본사에 과하야왓는데 본사에서도 감사히 바더서 돈은 총독부사회사업협회에 의탁하엿고 광목은 본사에서 직접수해지로 보내기로 하엿다한다

甘萬圓救濟費로 緊急救濟에着手

慶尙北道의水害對策

【大邱支局電話】 사일오전열시현재로경상북도에서 금번수해피해집게는 다음과갓다

▲死亡者三二七人▲行方不明者二二八人▲負傷者五二〇人▲家屋流失一、七三五戶▲家屋全潰三、八九八戶▲家屋半潰五、六五一戶▲家屋浸水八六、九八〇戶▲田畓流失四、九四二町步▲田畓埋沒八、四〇五町步▲田畓浸水三九、六四一町步▲農作物損害一一、一七一、七九二圓▲工作物損害二、八五二、六一四圓

전기와가티 전에보지못하든참해임으로 경상북도에서는구재비로 이십만오천구백구십원을내어 긴급구제에 착수하는중이다

"童話、童謠、音樂의밤" 妙洞幼年主校서開催

시내 묘동교회(妙洞敎會)내 유년주일학교에서는 오일(土曜)오후일곱시부터 신추아동가정위안(新秋兒童家庭慰安)의 저녁으로 "동화、동요、음악의밤"(童話、童謠、音樂의밤)을 개최하리라는데 연사는 동화계에 이름이 잇는 최익선(崔益善)、모기윤(毛麒允) 양씨를 비롯하야 묘동주일학교 동요부원의 총동원은 물론이요 특별히 묘동교회 면려청년회음악부의 찬조출연이 잇슬터임으로 자못 대성황을 예기하고잇다

今夜 白頭山探險映畫及報告講演會 午後七時半 於本社大講堂 【第六日】

白頭山映畫·講演

八日까지延長公開

본사의백두산 탐험영화와 및 그보고강연회(白頭山探險及報告講演會)가공개되어 나려오는지는 벌서 닷새째一련일 장안독자들의 열렬한환영을 바더오는만치 주최자편으로는 이 이상더 큰만족이업는바이다。 그러나 일정삼백명이나 수용할수잇는 본사대강당으로도 오히려 좁다하리만치 련일 만원초만원을 이루어서 개중에는 입껴와다 그냥 발스길을 돌리고마는 분이 적지안흔 현상에 비추어 본사는 그럴적마다여간불안한 생각을 갓는것이아니다。 그리하여 우리장안 독자들께 한분도 빼이지안코 끌고로 이귀중한 성산(聖山)의령자(靈姿)를 보혀드리려는 적은정성을 다하기위하야 자초의 예정기일이든 나흔날을 오는여드렛날까지로 연기하기로되엿다。

水害地의五萬兒童 教科書업서就學不能

묵은教科書를모아서分給하야주도록 學務局에서六道에通牒

경상남북、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북도의 여섯도 수해 리재민은 방금집도 옷도 밥도업시 사지에 빠저잇는데 그들의 자제인 오만명의 보통학교 아동들은 배우자니 교과서를 전부잃고 배울수가업게되여 총독부학무국(學務局)에서는 사일각도에명령하야 묵은교과서를모아서 분배하여주도록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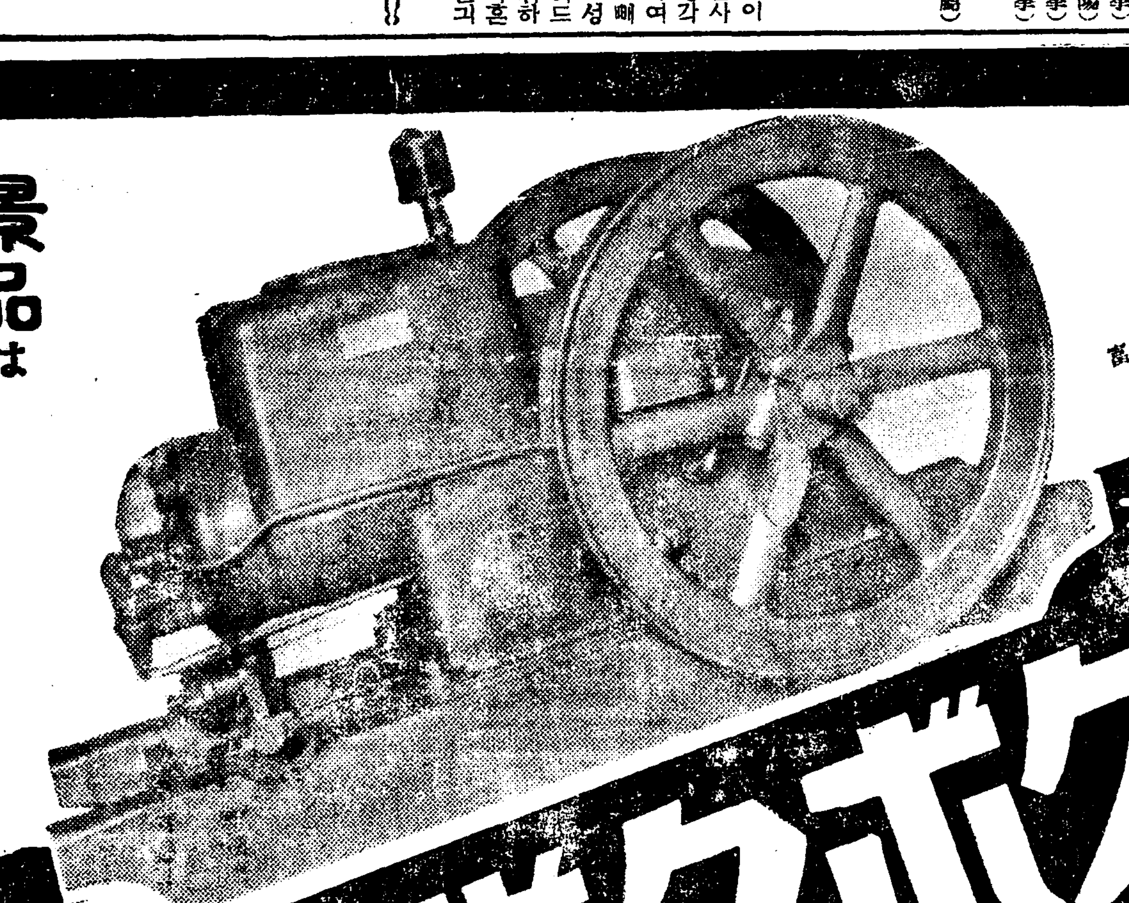
商工省優良國産機指定
農林省最高位推選機

謝恩 景品附特賣

期間 自九月一日 至十二月三十一日

石油 輕油

クボタ發動機



一馬力半より十馬力まで各馬力 在庫豊富

景品は 蓄音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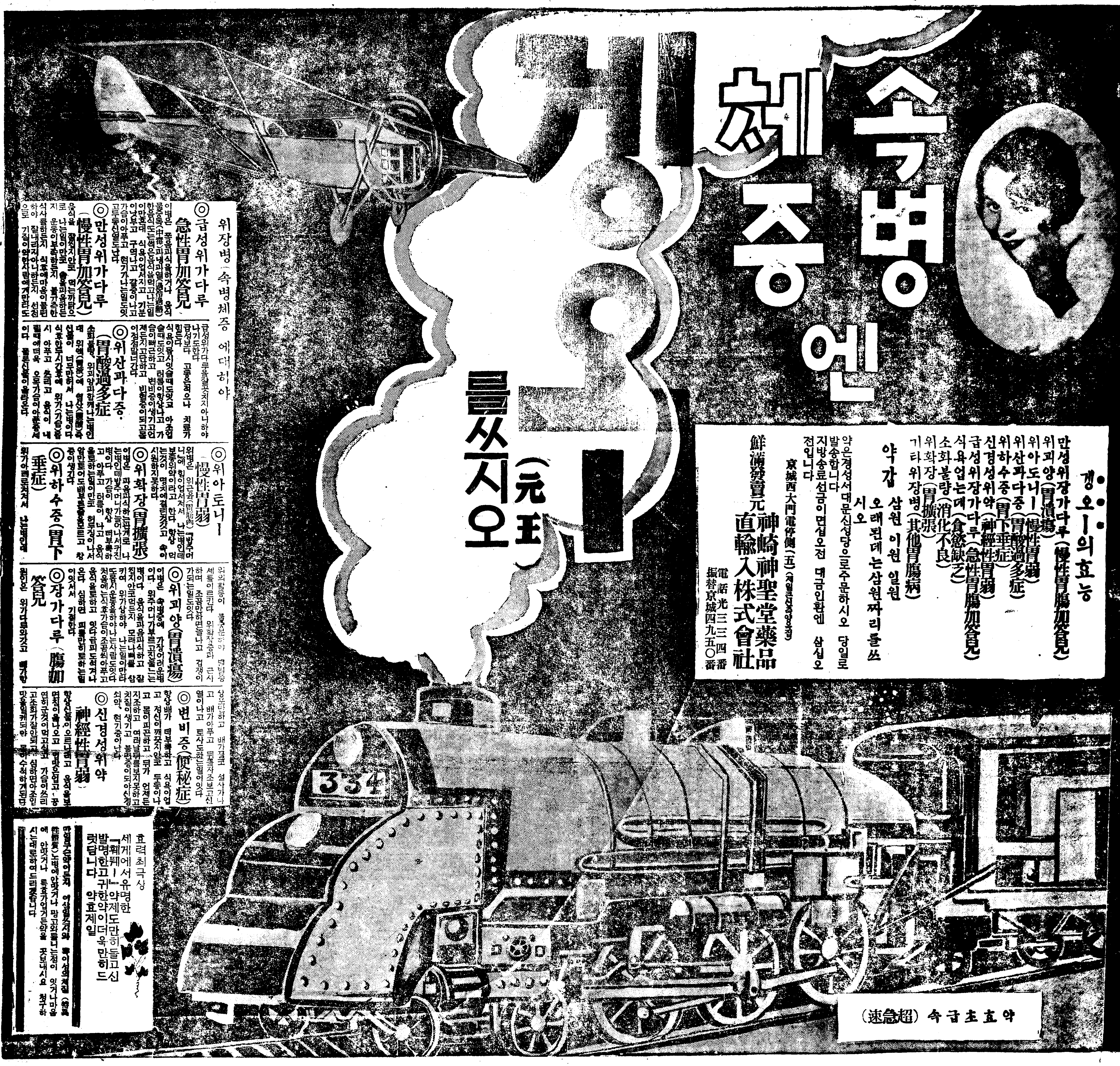
◇機械精巧◇音聲明朗◇體裁優美
◇ポータブル最新型

趣旨 クボタ發動機多年の御眷顧に對する謝恩として右期間內にクボタ發動機御買上げ一臺毎に景品として右蓄音器一臺を進呈致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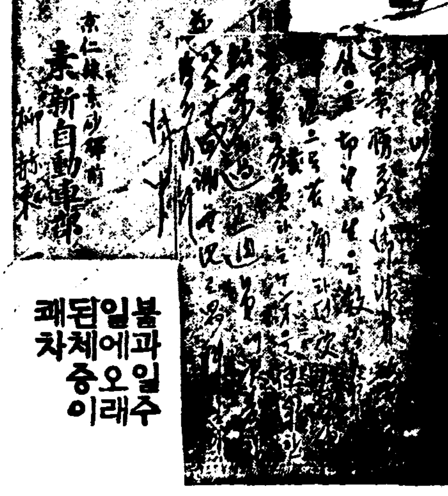
各地代理店特約店にて御買上を願ひ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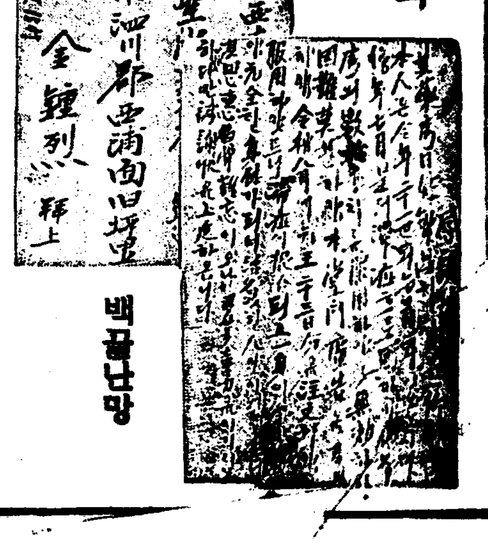
カタログ贈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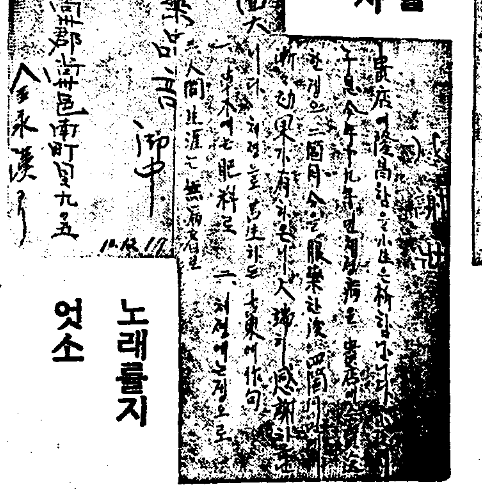
全國總發賣元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八二・四七八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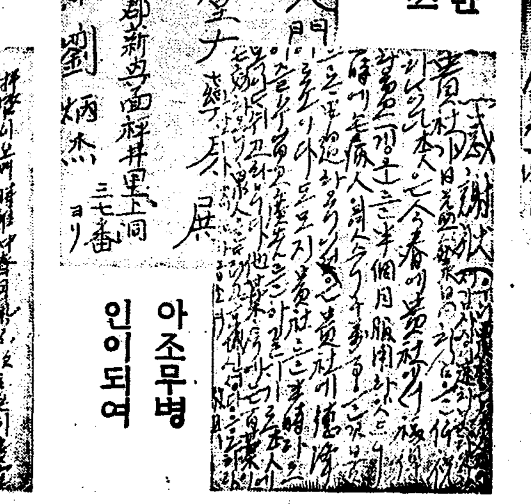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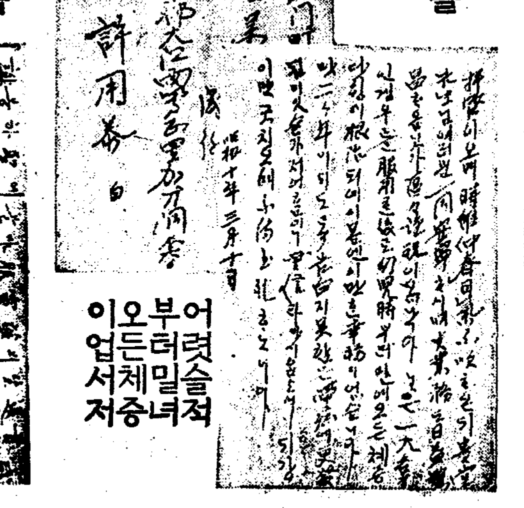
하로에천리길을번개갓치달니는기차(汽車)는엇지하야이갓치기운차게달는가? 말할것업시기관차(機關車)의힘이다 사람도소화기관인위장이(消化機關胃腸)신체모든활동의원동력(原動力)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그너는진수성찬도뜻에업고몸이쇠약하야만병의근본이되는것이다 몸이약하그신병이잇그야세상것이다ㅣ냇것이면무엇하며사회상에서무슨활동을할수잇스리오 신외무물이오무병이장자라무엇보다도튼튼한위장이건강에제일이다 위장병으로고생하시는분은약중에제일조흔『겡오ㅣ』를쓰시오 몸을보하그소화가잘되그체증을뚫고위장을다시소생식히는고명한약입니다 답지하는이감사장이사실로위대(偉大)한약효를증명(證明)함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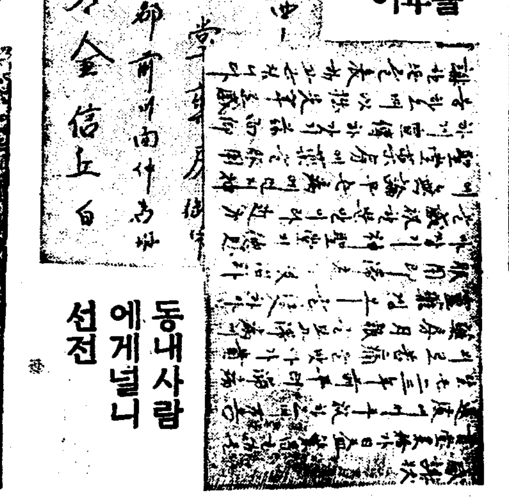

겡오ㅣ를쓰고 불과일주일에 오래된체증이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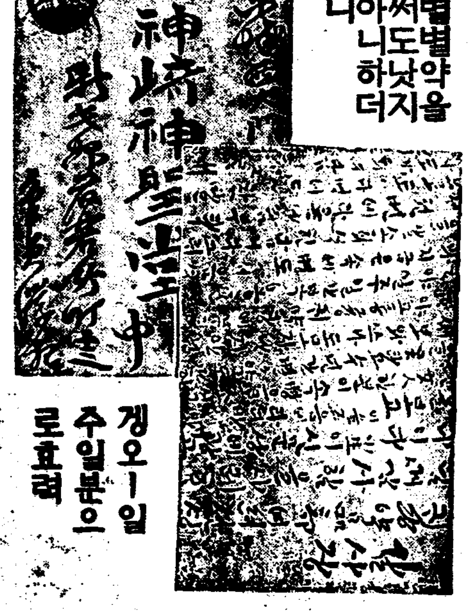

겡오ㅣ의은혜는 백골난망


겡오ㅣ를쓰고감사한 노래를지엇소


겡오ㅣ반개월을쓰고 아조무병인이되여


겡이ㅣ를쓰고 어렷슬적부터밀녀오든체증이업서저


겡오ㅣ를三年쓰고된체증이나서 동내사람에게널니선전


별별약을써도낫지아니하더니 겡오ㅣ일주일분으로효력

……아춤 — 정현주 —……

일년에두어번 회충약을먹자

진기잇는음식을먹어도 회충이가로채어먹는다

여름과 가을동안에 신선한푸성귀를만히먹게됩니다 이것은 사람의몸에리로운영양가치를만히가지고잇슴으로 될수잇는대로 만히먹는것은 조흡니다 그러나한가지 주의할것은 긔생충입니다 긔생충에는 여러가지가잇으나 회충과 십이지장충가튼것이 제일무서울것입니다 긔생충의 증세는 만성이되면 자긔도알수업는동안에 번식하는것임으로 치료하는것도자연 느리게되여서 소홀히취급할염녀가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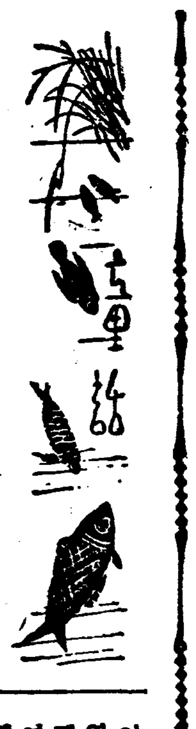
긔생충 가운데는 회충이제일만습니다 신문지상으로보더라도 조선전토의 보통학교아동들의 반수이상이 회충을 가지고잇 때로볼때는 회충 이라는것을 사람의 체내에잇는 일종의버러지로서 누구에게나 잇는것이거니하고 그다지 대소롭지 안케생각하고잇도록 회충을만히들가지고잇섯습니다 이버레가잇스면 별로 현저한표적도 업스나 만성장가다루(慢性腸加答兒)의 병상을나타내서 설사를하며 또는 변비를하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속에서 사람의영양분을 모조리흡수해버리는까닭에 회충이만흐면 만흘사록 사람의 영양은 업서지고 얼굴비치 핼숙해지면서 영양부족이 되여서 간혹경풍을이르키는것입니다 이런때는 버레가 배속에서굼틀거리며 호세스리놀고 잇슬때입니다

회충에걸리는경로는 대개가 푸성귀로해서 전해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푸성귀를먹을때 주의하야서 회충이 배속에드러가지안토록 예방하는것이 제일입니다

첫재 어떠한푸성귀든지 생것으로는먹지안는것이 조흡니다 생것이아니라도 회충의알은저항력이 강함으로 여간삶어서는죽지안습니다 우리가 매일먹는 김치가튼것은 엄밀히아라볼수업슴으로 그냥 먹기는하나 사실회충의씨가 우글우글한다고 볼수잇습니다 김치가튼것을담글때는 첫재 잘시처서 닭그도록 하지안흐면안됩니다 그리고 회충이잇는사람은 속히 업새버리도록 하는것이 조흡니다 회충에는 〃한도닝〃 이라던지 〃마크닝〃이라는 신약이잇스니이것을사서 먹는것도조흡니다 갓지조흡비싼약가 잇스니 해인초(海人草)를약방에서 구해먹는것이 돈도얼마안들고 조습니다 그리고 회충약은 일년에 춘추로 두어번씩 먹어두면 대단히 구충의효력이 잇습니다

먹물빼는법

먹물이 힌옷에 무덧슬때비누물이나 소ー다물로 삶아버리는것은 잘못입니다 삶으면 먹물은 점점더 배여버리는것입니다 제일조흔것은 새똥을먹물무든자리에 발너두엇다가 문질너버리면 신통하게집니다 농촌에서는새(鳥)똥이 흔하니 어듸던지잇스나 도회지에서는 새파는집에가서 말하면 얼마든지 팜니다



엿장사할아버지

吳章煥

엿장사 할아버지는 기ー인그림자 땅에끌면서 찰랑찰랑가위질을 하엿습니다 엿목판은 진실이 자전거의 몸체를 뜨떼서 만드럿구르마 할아버지는 고향이 업습니다 왜요, 그럴리야 잇슬라구요? 할아버지는 ■엇습니다。 허ー연 수염이■ 그만바람에도 나붓깁니다

할아버지는 어렷슬시절씨름을아조조와 하엿답니다 할아버니의 아버지는 장■백이, 엿장사할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따라 다니며 백중이면 씨름판에도 나가고 하야 어느때에는 패리떠와 주기를 상타보죄도 여러번이엿습니다。

엿장사 할아버니는 어렷슬때를 아버지 따라도라단이여 고향이란 아득ー하게틀려는듯 려남땅이라는 이약이도 생각이낫습니다

이곳은 눈보라개치며 제법치운곳 알를강바람이 몹시는 세여서 옷속 옷속소름이 끼치옵니다。

엿장사할아버니는 이러한곳을 지날때이면 몰ー생각하는것 그것은 마치 꿈나라와가튼 고향땅 려남의이야깁니다。

한창ー치위를 모르고 어룸장과 고드럼을 신긔하게녀이는땅 그곳에는 아득도흐호로운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계신것만 가텃습니다。

려남땅은 작마가 만흔곳 그의 어머니도 활건들에 떠나려 먼나라로 가시엿지요 할아버지는 퉁수도 잘은부른답니다 어스름한 달밤에 호로롱 호로롱 하라버니의 슬픈 퉁수소리를 들으면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은 슬퍼젓세요 엿장수할아버니의 퉁수소리에 울은사람은 한두사람은 아니엿습니다。 제일먼저는 할아버니가 우럿스니까요。

할아버니도 어렷슬때에는 기운도세고 똑똑하다는 소문을 가젓습니다 남에게 지기를 무척은 실여한 그이엿지요。 그러치만 세상은 씨름처름은 쉬운것이아니엿세요 할아버니는 먹을것이업서서 그의아버지가냉기신 적그만 장사미천을가지고 엿장사를 하엿습니다。

엿사료! 엿사료! 하고 동내동내 외우고 단이노라면 낫서를 동리, 동리의 개는 우단이도 지저덥니다。 컹, 컹, 컹, 컹, 콩, 콩, 콩, 콩 개와 강아지는 이러케 짓고 찰캉, 찰캉, 찰캉, 찰캉, 하라버니는 이러케 가위질하는사이에 할아버니는 늙어젓습니다。

씨름은 조흔구경이지요。 서로 안잡비질라고버티둥거리며 애쓰는것은 어린에게만 엿구■ 하라버니는 조금■ 엿조각을 난호아주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씨름처름 쉬웁지는 안트라고 한숨을쉬이며 할아버니는 이드러운놈의 세상을 둘러머업고시퍼도, 씨름처름 살파가 손쇠울게잡히지는안는다고 한숨을쉬엿습니다。

할아버니의엿모판에는 고무신뚝이러진거나 쇠빼다귀, 삽베검레, 옷떠러진것, 깨여진 유리병들이 담겨잇습니다。 할아버니는 무에든지, 못쓰는것도 모도다바터갑니다。 어린애들은 하라버니의뒤를 딸어단이며 손우함을 빨엇습니다。

오ー나ー너는 암만해도, 아충밥도 못먹은애갓고나, 엇다, 하나먹어라, 하고 헙벗은아이가 떠려오면 이러케 난호아 주엇습니다。

그러나 치운겨울 눈만히싸힌 어느날이엇습니다。 동리애들은 암만 그할아버니가 오시기를 기다리엿서도 할아버니는 오시지를 안엇습니다 그리자 노루롱창으로 갓든 산양군이 엿장수하라버니를 길등성이 눈우에서 발견하엿습니다。

할아버니는 길가에서 잡들엇습니다。 할아버니의 빳속은 눈처름은 하ー얏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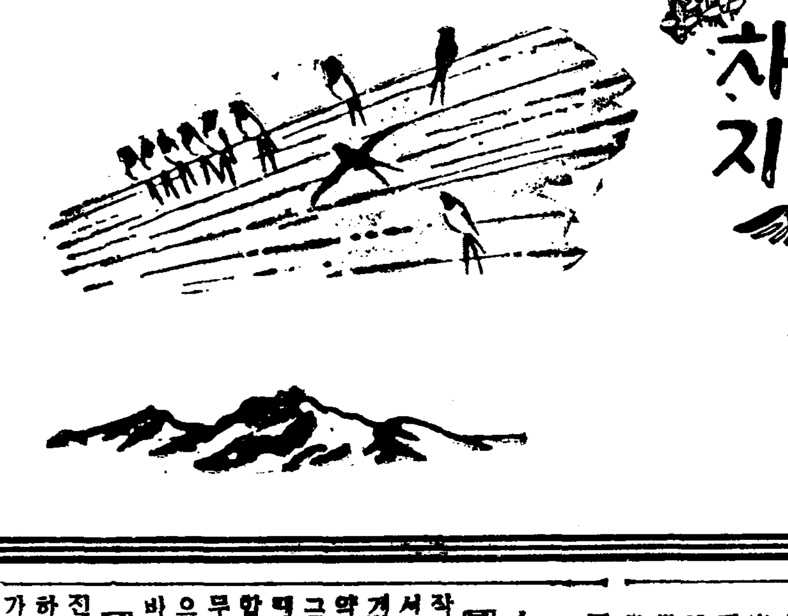
ー끗ー

우리차지

〃제 비〃

제비새끼는
빨랫줄에、안젓다、날럿다、
날으는 공부를한다。
강남이 서울처럼 가고
십흔가
그러나 봄철이오면
강남갓든 제비들이 돌
아옵니다。
고향은 그리운게죠。
제비들은
전긔줄에 올나안저서
전화를 하는지
전긔줄로 모여듭니다。

(글쓴사람 오장환)



병으로볼수잇는 너무살이찌는것

내부필장애에는홀몬료법 군것절、파식도원인된다

몸집이 동동하고 작고살이찌는 것은 건강한것가트면서도 실상은 훌융한병입니다 더운여름에는 숨도잘쉬지못하고호흡가무겁게하면서 제몸무게를 정하는것은 비록건강해서 그러하더라도 그다지 반가운 일이못됩니다 나히 이십전후에는 호리호리하고 맘리서명 해라는 별명을듯든사람도 변세가 삼십이넘어 사십고개를 바라볼때가되면 어느사히에몸어 동동해지는수가 잇습니다 이것은 대개지방질을 넘우만히섭취하야서 일어가는수도잇고 도운동이 부족하면서간식을 하면 어려케되는것입니다 비만증이부인네는 그원인이 두가지가잇는데 하나는 간식과 운동부족외에 란소 기능장해(卵巢機能障害)로 말미아마일어나는것입니다 비만증은 그원인을 잘모르고 그저남의말만듯고 이약저약을 함부로써보아야 낫지는 안흘것입니다 무엇때문에 비만해지는가를 첫재아라가지고 거긔대한 약을구해써야만 될것입니다。 간식과 지방질과 다른원어난 비만증은 첫재 기름기만히잇는음식을 먹지말고 지방의축적을 방지하야 지방의분해를 중지시킬것입니다 파식을하지 마러야합니다。 밥이나 다른음식을대하면 무슨취한 얼이나

하는것처름 기를쓰고 아니서온것과 보충자긔로서는 적당한분량이라고하며때라도 보충사람의 긔준으로보아서 파식게도일때는 배를고는한이잇써라도자차로 적게먹도록 습관을 부치는것이 조습니다 그리고 밥은 쌀밥은먹지말며될수잇는대로 잡곡을먹도록하는것이첫젯니다 그리하야 운동을할것 한기치미터 날마다계속하고목욕과 일광욕을하며 채소나그런치안흐면 집 미역 다시마 가튼것을 주장으로 먹어야 할것입니다 하로이틀에 곳칠 생각을하지말고 꾸준하게나아가도록해야 합니다 그리고란은란소홀몬제「오바ー홀몬」리하수체전엽(腦下垂體前葉)홀몬가튼약을 쓰는것이 조흘때미만증이외의성이생각하고 치료도역시 자연반치하면 나중에는 조치못한결과가 탄청을것이니 속히 치료하도록하며 늘갓심제를써서 심장의보강작용을이저서는 안될것입니다

구속을너무하면 커서젓이줄어

딸가진분은주의하시요

요사히 선여성들로 아이를 나흐면 젓이 부족하야 곤난 당하는 사람이 만습니다。 이 원인은 딴것이 아니라 도회 지생활이 가저다주는 영향이 여성전체의 체질을 저하시킨 데잇다고봅니다 그뿐만아니라 축첩으로 원인되는것은 여자가 아죽 나히열세네살적게집의 변화가 일어나고 월경이처음시작 될때무리한공부를하던지 또한 학교에가서 여러가지머리를만히쓰는까닭으로 머리에만혈액과 내분필이 소모된까닭으로해서 생식선이 고갈됩니다 그러하야 소아자궁이 생거면지 임신몸이 저하되던지여러케아히를 나트라도 젓이나 오지안흔수가잇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시험공부를 너무지독스리시킨다던지 무리에가까운 구속을하야 거리를쓰도록하는것은 어린딸을 두신분은 주의하여야 될것입니다 어린아히는 젓이 업스면 인공으로라도 양육은 시킬수 잇스나 영양이 부족하여서 그 아히는 허약해질것이며、소아자궁이되여서 어린아히를 나치못하게되다던지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아닐수업습니다 그것을 방지할대책은 건강에도주의하지만 어릴때 자궁이발육을왕성히시작하는 열세네살적 너무 과중한공부나 피로를 주지안토록힘쓰지안흐면안될것입니다

학의정가

이빗이히지못해

問 저는금년이십삼세되는여자올시다 항상이빗치 누ー램서뇌심으로날을 보냄니다 날마다식후는 물론이요 수업시다어도효과는업사오니 원컨대선생님은가정치료법을 하교하야 주십시요 (서정리 일독자)

答 사람마다이빗츤모다 다르다고 볼수잇습니다 선천적으로된거야 아모리약을 사용한다하여도 도ー저히되지안흘것입니다 만일 치석이잇다든가 흑은 음식물로인하야 치아에 침착이되여잇슬때는 문제업시 본색으로 할수잇습니다 그러나이것은 도저히 가정치료법으로는 불가능일가합니다 아모래도한번은 전문의사에게 진찰을바든후 좌긔에약을 하로에 수차함수하야보시요 사용시에한홉보둘에 이삼방울을 처서양치하시오

원라ー구린油	○、一
硼酸末	○、一
사롤ー	○、二
安息香酸나토리욤	○、二
티몰ー	○、○一
桂皮油	○、一
茴香油	○、一
薄荷油	○、五
酒精	一○○、○

(世醫專齒科 金原喆)

속이뉘웃뉘웃하오

問 금년이십팔세귀혼 남자인대 작년팔월부터 속이뉘웃뉘웃하며서 심지가대단나쁘기로 의사에게진찰한즉 회충이잇다기로 회충약을먹고대소의회가 나왓습니다 그러나 속은여상뉘웃뉘웃하고때때로 흉복이격렬하고 큰망증이심합니다 그러고신체도쇠약합니다 무슨병일까요 가정에서나 의약으로치료할방법을 가려처주시기 바람니다(강릉고민생)

答 회가완전히나왓던지한번터 진찰하야보시고 완전히나오지안하얏거든 뎌약을계속하십시요 회가완전히나왓서도 그런증세가계속되옵거든「목쏘ー르」라주사를마저보십시요(聖母病院長朴秉來)

強烈な紫外線

粗惡한色素는危險하다

困難한皮膚異變

秋!

女性을가장困難하게하는皮膚現象…그것은秋季에만흔過剩皮脂를 그대로버려두면

▲第一로化粧이기름끼가잇서化粧의淸新味가곳업서집다

▲第二는容易히回復되지안는惡質인그리고部分的벗꺼름을이르키게됩니다어떠케하면其念慮가업시夏季의小麥色살결을그대로保持할수잇슬가

▲最近美容術界에센세이순을이르킨大發明으로서 놀래고잇다。活性特殊白昧劑라고해서過剩皮脂만을緩和하게繼續的으로吸收調和히게된다重寶한高貴美肌前을巧妙히集合粒子에써서配合한마스타ー의粉白紛과홈패트(家庭用콤팩트)를使用하시면惡質인벗꺼름을完全히防止하고化粧이恒常爽快하고滿點입니다

◆日光의紫外線을吸收할때마다吸收한紫外線을살결에反射하는 程度等西澤博士외科學的硏究를거듭한佛國의最高級色素를應用하엿습니다。

마스타ー의粉白粉은夏季特허衛生的은完全한것을말슴드릴餘地가업습니다

살결의生生美의 工作의要는!

標準的바니싱을選擇하는것입니다。簡單한方法은손바닥으로바니싱을문질러보면피엿다고생각하든것이피지안습니다。이것은鹼化度가不充分하던가過皮한證據로只今까지피엿스리라고생각하엿든것이事實은摩擦하기爲하야液分만分離하엿슬뿐으로크림分은不均等으로一分部살결에만부터잇습니다、마스타ー바니싱은

▲皮膚科의醫學博士가놀래리만치最適의狀態로만드러젓슴으로산뜻하게살결에녹아드러獨逸特許의스킨호루몬性라세랑이라고해서皮膚細胞에美의榮養과活力을주어老廢物을排泄하는作用이强한高貴榮養劑가配合되여잇슴으로

▲살결의新陳代謝를活潑히하고

▲여드름等皮膚障害를解消하며地肌의生生美를養生하고▲面刀後

▲化粧下等으로第一입니다

顯微鏡で見た皮膚の橫斷面

マスター(마스타ー) 千番 粉白粉

季節의除隊

避暑地款告 — 釋王寺餘錄 (下)

徐光霽

素水를 두어그릇하고 개울에 나려가 세수를 하고 다시 湖미로 나려온다 이때쯤되면 잠자든 避暑客들이 素水를向하야 컵파수건을들고 드믄드믄 올나온다 밤새도록이할것은 업지만 五六時間汽車에서 시달엿스나 고단도하련만은 그래도避暑第一步라 아는사람이 몃처나하고 旅館巡禮를 하려나간다 旅館이래야 四五個밧게 안되지만은 그中에는 한旅館에 七八十名以上이나 묵고잇는旅館이잇서 한旅館에 가리잇스면서 못맛날때가잇다 이旅館 저旅館 이房 저房뒤저보면 이름은 서로몰나도 해마다 이곳에오는 避暑客들과 인사를하게되고 그중에는 親한동무가 몃식은잇다

한바탕 旅館巡禮를하고와서 아츰밥을먹는다 내가 묵어잇는 B旅館은 예전부터 男子손님보다 女子손님이 만히오는곳이다 수수도 아니나 다를가 B旅館에서는 上等房이라고할만한 一二三四五號室에 全部가 女子손님이고 맨끗헤房 六號室에 내가잇게되엿는데 이旅館에 房이全部여섯개밧게 업는것이 아니라돌아매로 房이十餘個나 잇스나 이 여섯개만큼 시원치못하야 어느손님이든지 이방에만들나고한다

그러고보니 一點紅이 아니라 一點靑이된 나는나지면때운데도 옷을마음대로 벗고잇슬수도업고 그들역시 나하나때문에 더운데도 적삼도 푸려헤치지못하고 잇는것이 말업는戰時狀態가 태서 할수업시 나는 아츰만먹으면 麥酒세병을색기에 매가지고 수건과비누를들고 素水터近處의 개울로올나간다

개울에가서 麥酒를 물에다 담거놋코 여름이라도 어것게 울물은 자서 대번에 몸을 젓어볼수는 업스니까 발부터 살살젓어너서 몸에다 물을담그고 물바게를비고 누려눕다 혼자서 멍하니 도집더보고 日光浴을한다고햇볏에나와눕기도하다가 앗가 웟든麥酒를끄내여 물속에서 채워을 볼면그시원한 맛이란 地上에잇는人間으로서 어떠한 地位와어떠한 財産에을다지 잇든 나 以上은 업슬것이라고 혼자서 喜悅을느기며두볼를 장단을친다

그리다가 저녁이되면나려와서 麻雀도하고 빼비골프도하다가(勿論避暑客처에는 나혼자서갓지만 멧칠잇스면 男子도잇게되고 女子도잇게된다 運이조흐면美人을알게되여 방갈로모)하기가편조타

K라는美人이잇는데 釋王寺에 온지 어릴뿐에 벌거되엿다나 제는나의麥酒와水中飮酒의 이엿서女子와가티 할수업스며 또 배워서 가티 어와이하기도되로운것가려서발이면 그美人과 맛나는때 때는맥친보를가리밟은몸은港散사히로 우리울어나러보며 부리워하는곳 방긋이 웃고잇다 湖미에서 伴侶僧의 올雨해서 조곰거러가면 크다한 果樹園이잇고 그여페 조꼬만한 색집이잇는데 꼬여페 바로 적은 개울이 나려가고 나무다리가 잇다 해만 지면 그길로는 사람이단이지안는다

그美人과 두리서 다리난간에발을느리고 안젓스면 바로 아래서 흐르는 잔잔한물소리와 머리우에서 맑은달이 빗처주는한쌍의 젊은 그림자는 노래를불너주는것과도갓고잇다 금草蟲들이 나무를해서 지게에일로 휘파람을불며 우리를보고지나며 지나가는방은 그들의 世界에서는 우리와가를 좋은 소食 다고 비웃는것을다 外衆들을다며 여더딜 世界에서 놀더가元山을向하야 마즈막으로 덤며가는 客車가 우리들을 지나 갈때에 우리는 다시 긴 한숨과함께 現實로도라와 旅館으로거러간다

中伏날이면 旅館主人에게말하야 갈비를사게하고 닭을잡게하여가지고 그때쯤은 한旅館사람은모도 親하게되엿슬때이니까 한집안食口가되 山에올너가서 놀노리를 하고는다 아모리더운 여름이라도 釋王寺에잇스면 얼마든지 더위를잇겨할수잇스며 末伏이지나 京城行汽車에 내몸이 오를때에는 사랑하는美人을 두고오는것가티 퍽으나 서운하다

—끗—

文章論 — 現役作家들의 伎倆

…그들의個性과領分에關한小考…

③ 安懷南

日前某報에 發表한 拙論「現代小說의性格」에서도 말한바와가티 李泰俊氏는 모파상 체홉等 오늘날로서는 古典的인 短篇小說의 手法을 踏襲하고 잇다는 點으로 金東仁氏에게 比較되엇지만 文章에잇어서도 金東仁氏의 그것과

…酷… 似한것이잇다。이분들의 무엇보다도 簡潔을 爲主로하야 極端으로 말을節約한 文章은나종에 副詞와 助詞까지를 쏙쏙 빼여먹는習慣이 생긴것 가튼것이다。例를들면

『술을 한잔이라도 허루루 먹는 법이어다。』

普通이러케 할것을 그들은다음가티 쓴다。

『술 한잔 허투루 먹는 법업다。』

이것은 李泰俊氏의『꽃나무는 심어노코』속에잇는 句節이대『을』『이라도』『어』等 세가지의 토가 떠크아웃 되어잇다。또

『푸른것은 풀어요 붉은 것은 꼿이다。』

『푸른것은 풀 붉은것은 꽃。』

李泰俊氏에게서는 못보앗지마는 金東仁氏는 終止詞 까지를 곳잘 橫領하신다。이러한 文體는 新聞連載의 通俗小說에서는 스토리를 聯結하는데에 適合한 렐포로 效果를 나타내게되지만 리알, 라이프를 生命으로하는藝術的作品에 잇서서는

…過… 度하게 枯淡한 느낌을주어 조치못하다

또한가지不滿한것은 小說속에나타나잇는 對話인데 亦是『꽃나무는 심어노코』에서 차저보면

『대에 노치드립가요?』

『우리 친사람 잇소』

『대에 눈 안치시렵니까?』

『어려니 집가 걱정이오』

또 主人公이 병든아이를 病院에 업고가서 治療費가업서 拒絶을 當하는 場面에가서

『이애좀 살려주십시요』

『선생님이 아직 안나오셧소그런데 왜이러케 죽게되도록 두엇소 진작 데리고 오지?』

『돈이 잇서야지요 돈이』

『지금은 잇소?』

『업습니다 그저 살려만주시면 그거야 제가 버려서갑지요그겨야갑겟습니까』

『다른 큰병원에 가보시요』

이러한 것으로 觀察하면 李泰俊氏는 너무얌전한 文章家라고 非難할수잇다。그러기때문에 그의隨筆을보면

…東… 洋畵的 靜寂가흐르며 아름다우나 小說에가서는 表現할랴고하는 對象의 核心을 捕捉하지못하고그것을 싸고도는 맛이잇서 描寫로 되것이업고 모두가 흥미지근한 敍述이며 現實에의 切實한 還元的 感興을考慮할때 에는 퍽 不足한것을 깨닷게되는것이다。우에 提示한 會話도 人物 따로따로의性格이 發露되어야 할것이어늘 그러지못하고 甚하게 말하면 恰似히 外國사람이 朝鮮語를 하는것처럼 되어잇다。

그러나 이러한것은 小說의立場에서본 缺點만을 말하여본것이지 文章 그自體로서 생각하면 現役作家中 나는 于先 李泰俊氏를 첫文章家로 꼽을수밧게업다 잇는바이며 또한 그表斷를 發見하라라면 얼마든지 조은대목을 맛볼수잇는것이다。昨年의『꽃나무는심어노코』와『아담의後裔』에서 바든印象이 最近『색시』와『가마귀』等을 읽음에미처서 好點和가를 잔득

…乾… 燥하여잇든 느낌이 消滅되엇스며 청신한 부드러운呼吸이 생겨진것갓다。小說한篇이면 적어도 數行의助詞 副詞等이 行方不明되어잇슬레데 近者의것에와서는 그것들이 어지간히 活潑한 使役에좃고잇스며 用語만도 前보다 感覺的인것이 만타。

『가마귀들은 이날저녁에도 별다른 소리는 업시 그저 까악ㅡ 까악ㅡ거리다가 이따금식 까르르ㅡ하고 그 GA아래 R자가 하엿시 부른 발음을 내이군하엿다。』

『가마귀』에서 拔萃한것인대 정말 가마귀소리를 듯는것가트며 李泰俊氏에게 잇서서는『GA아래 R자가 하엿시 부른 까르르ㅡ』소리야 말로 니로서는 처음듯는 新曲譜이다。此外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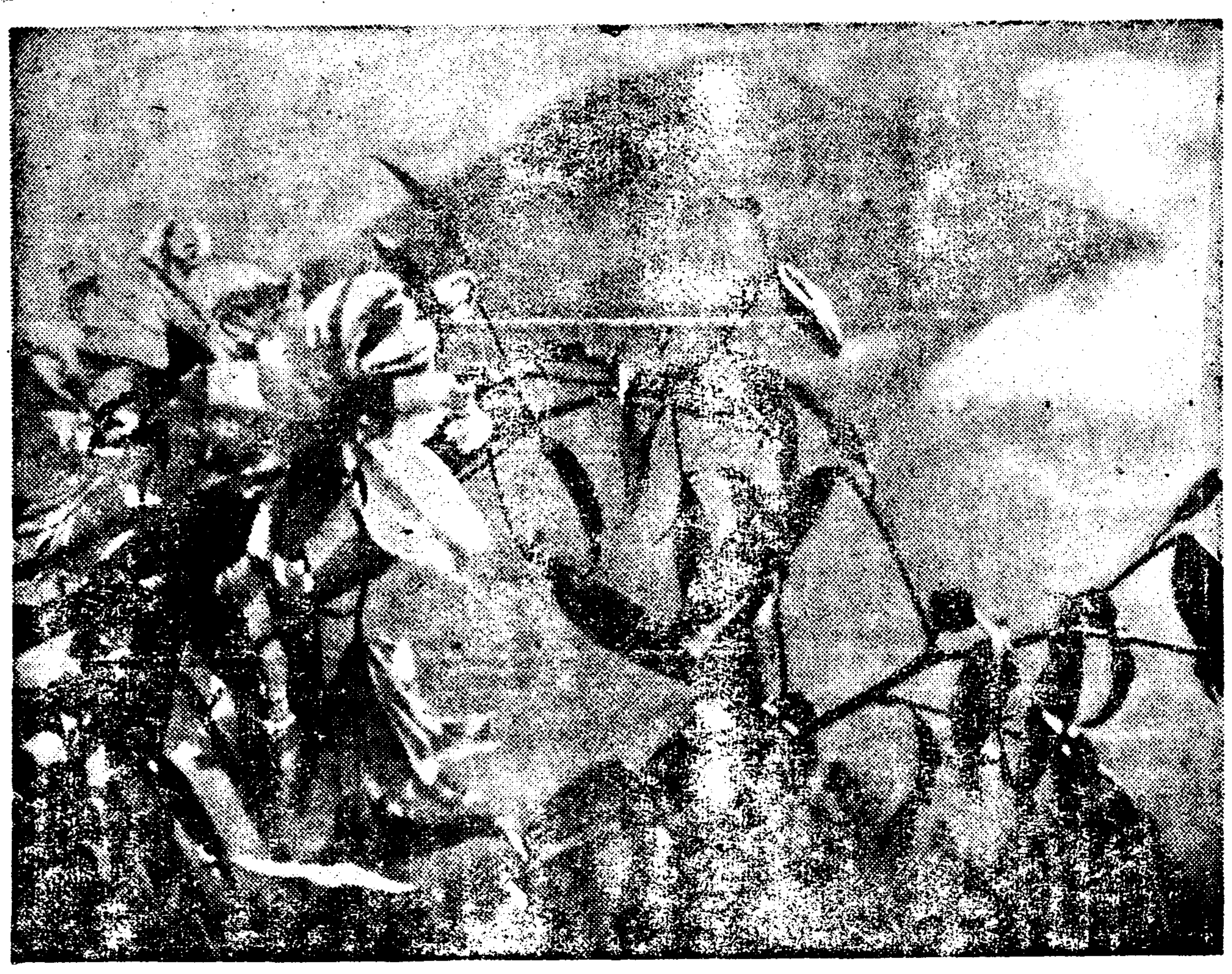
『창백해진 얼굴에는 상장(喪章)가튼 마스크를 입에 대이엿고』

『잉크는 새것이한병 새벽우人篆처럼 중중히 닭겨잇섯다。』

『갑작이 오묵이 비단에 싸이는듯 살이 잘듯한 행복을느끼엇다。』

等等 余然 氏의 文章의 雰圍氣와는 벌다른 新鮮한 맛이잇서

…隨… 筆體의 文章은 小說에와서 비아흐로 小說的인 文章으로 變貌하여가는듯하며 모파상과체홉과의 差異가 똑가티 金東仁氏와 李泰俊氏 사이에 잇게되는것도 이러한때서 說明될것이아닌가 한다



…남ㅡ은ㅡ香ㅡ氣…

移民文學의 過去와 現在

⑥ 韓植

도로혀에룬스트·드라『가 말하는바와가티『當時의 事件이 確現代에잇서서와갓고 그리고 벌서 지내간 그들의 生活이 마치 우리들과 同時代의 사람들의 그것처럼 생각되다。우리들은 過去의 그들에게서 우리들自身의 姿態를 볼수가잇는것이다』또『포이트·와가』가 말한것과가티『나의 歷史小說에서는 現代小說과 똑가튼

(內容)을 賦與하는것을 目的으로하다는말을 明言하여도 조타』이와가튼때문에 그들은 決코 歷史의 單한回顧에 低迷하나 過去의 密林속에 逃亡간것이아니고 도로혀 그와 反對로 歪曲당한 歷史를 正當히 그의 位置에 노여봄으로써 過去의 歷史에잇서서 現代를를려함이며 따라서 歷史의 가장 正當한 푸로세스와, 및그의展望을 表示하는것이며 過去의 先驅的人物等의 生活로써 그들의 將來를照光하자는것임에 틀림업다고생각한다。

그리하야 이와가튼 두傾向을 包含하면서 그發生의 必然의所産으로써 獨逸移民文學은 그때문에 歷史를 逆行식히는 히트려의 政策에 어듸까지든지 反抗하는 生命을가진것이며 따라서 안티 파시즘의 힘센共同戰線을 取하고잇는것이다 最近에잇서서 獨逸의移民文學者들은 더욱 佛蘭西의 進步的文學者와가튼 連結을 가지고잇는것을 볼수가잇스니 그것은歷史的으로地理的으로

民文學의 現在에잇서서의 새로운使命으로서 世界文學史上에서 처음보는現象일것이다。

이와가티하야 現在에잇서서의 獨逸의 移民文學은 漸漸 그文學的內容을 豐富히하며 眞正한 意味에잇서서의 唯一한獨逸文學으로써 아모 遜色이 업는 活動을 거듭하고잇스며 더욱國際的 關心을 끌을고잇는것이다。

그리하야 우리는 이世界文學史에잇서서 未曾有의 現在의獨逸의 移民文學을 過去의移民文學과 同一한意味의 內容을 賦與하고잇는 點에잇서서 人類歷史의 進展을따라 未來에向하야 그의文學價値를 더욱發揮하는것이라고 斷言할수가잇는것이다。

(當然)한일이라고 할것이다 더욱佛蘭西의 進步的 ... 獨逸移民諸文學의諸誌들 사이의 執筆者의交換가튼것은 多

그리하야 나아가서『어제로부터』는 國民文學은 그다지는 ... 를가지지못한다。世界文學의 ... 期가 到達하엿는것이다(뭐ㅡ테)ㅡ 그럼으로『獨逸移民文學은 世界市民性이다(토마스、만)라는 ... 알므로서『내가 사랑하고 나의 ... 詩을 結實하게한 獨逸은大한 ... 世界市民의 獨逸이엿다(토마스、만)를 알므로서 이제 우리는 ... 實한 世界市民性을代表하는 獨逸文學 事實에잇서서

唯(一)한 獨逸文學은 移民文學이라는것을 肯定할수가잇는것이다。

그러면또、또우리들로ㅡ구요리도 ... 獨逸大王이라든가、베스따ㅡ、... 카이제의獨逸이아니며、우리들이 ... 愛敬하는 그때ㅡ테『그테』『한트』『와구나』『하이토벤』『칸트』代表하는 眞正한 ... 그리하야 그것은未來로는 世界市民性에 屬하는 移民文學의生長과 活動을 注目하며『우리들亡命作家들이 如何히 活動하며 今後로는如何히 活動하게 살지안흐면 안될것이가(포이트·왕가ㅡ)의말대로 今後의 그들의 活動을期待할려고하는것이다 (了)

漢詩

『蓮』=押心　桐岡考選

二等　羅南壽南町　松山權夫

紅朶抽長碧葉沉
滿塘秋色正難禁
仙姬浴水含羞態
老佛臨臺見道心
列擊珠盤朝露轉
舒飜羅傘晩風任
對君回憶濂翁趣
物外從觀似古今

評曰 淸麗似珠花有幼應呼知己

讀者社交室

▲讀者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小生의從兄李篠島(幼名天尋)(ㅣㅇ) 咸北明川出生인이가 至今부터 七八年前집떠나신然後 風便에들은則北靑 元山 仁川等地에서行商을經營한다고하오나 行方不明이되엿사오니 萬若아시는분이게시거든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시오면 퍽感謝하겟노이다 厚禮하겟노이다
咸北明川郡西面龍洞學校村六一 ○ 李容南

▲舍돈童謠作曲家에게告합니다 제가不日中 新進童謠作曲集을만들려고하는데 讀者中 액기고엿긴作曲品이 잇스면저의뜻을 諒知하시여 下記住所로 보내주시옵소서。
京城府孔德町三六六番地 어린이드라마會內 嚴達鎬

▲英語大學編纂하신 李泰洪先生任의 住所를 가르처주시면고맙겟습니다 저는 至今 英語를 배홀가하고 社交欄여러先生任께 問議하오니 英語배호는데 注意와 冊名을 直接이나 社交室로 下敎해주시십시요
北滿 安生 白

平南平元線舍人場 羅明夏
▲萬寶(?)品販賣店에서 ... 希望者에게讓渡하여드리겟습니다 一、時計修理道具도一切잇습니다 希望하난분게 廉價로드리겟습니다 詳細한말씀은來問이나書信으로알리여주면조켓습니다
京城館洞町五七의五 申天寶

▲讀者社交室을 通하야널리世上에 求婚하노니 家庭主婦로서生活에對한 意識이잇고中等程度의敎養이잇는 性格이 溫順하며 發育이完全한 獨立女性을 廣求하노니 意思가合理되시는분이계시거든 經歷과 寫眞을 添付하여左記住所로보내면 本人이現實在회回示하겟나이다
咸興府山手町二丁目一八二 李鍾善

▲三湖에계신 崔兄에게 答합니다 이제부터 서로꾸준히硏究하여나갑시다 小說家李北鳴氏의住所는 咸興府城川町四丁目二四七番地입니다
永興 韓抱月

▲社交室여러분 저는北滿一隅에서 小學校敎員在職者이온데特히 最新發行된 小學校에 가장適合한 朝鮮文으로된 敎育唱歌集을 求코저하오니 그發行所와價格을 社交室을通하야 下敎하야주시오면 萬萬感謝하겟습니다 特히現代의것으로 最新刊을求하나이다
北滿 安生 白

▲本欄을通하야 崔一兄을찻즈려고 本社社交室을 빌려왓스니 兄께서 現在 ... 任君은四年前에 上京하앗는데 其後소식이업스니 行方을알수업스니 아시는분이잇스면 社交室로通知하여주옵소서
市內嘉會町四四七ノ五號 春蘭

▲家庭敎師를求하시는분에게 生은 市內某專門學校在學中이온데 入學準備를시키고자함니 이나 中學一、二年生을指導하겟사오니 意向이有하시면社交室을通하여 記明하여주시시요
京城 學生 Y、K、K 貫鐵町四一ノ二 金容善

▲讀者諸賢이시여 牧野英一氏著日本刑法(新版)과 同氏日本刑法硏究第五號까지가잇스면 投賣하시든가 讓渡를좀해주시요 그리고 어느古書籍店에 法學志林을 創刊以來것全部를사려고하오니 이社交室을通하여주시요
元山 朴鍾鎬

▲金萬基君只今어데가서잇는지 궁금하니 直接通知하야주게 後事는念慮말고!
萬天下讀者諸氏여! 右人物은 本人의 從弟이온데 去三月에 無斷出家한後消息이 업스니 아시는분이게시거든 書로 通知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人像은 顔面에 죽은깨가잇고 年齡은十八歲 本籍地는安城邑입니다)
市內校島町一四八 金瑛基

▲讀者諸氏中 다음이레코-드를가지신분이게십니까 映畵解說界를永永떠나신 金永煥氏가 吹込한 廳鄕 校道 두가지에어느것이나가지신분이게시면 其方面으로나他方向의레코-드를交換하여주실분이게시다면 참感謝하겟습니다 有하신분은 本欄으로나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시오
咸北明川郡永安 京城洋服店 朴燦協

▲小生은TB經驗者로 該病者에도움이될가하고 自然療法을未知하야彷徨하는분에게 小生이購讀한自然療養社出版인 療養生活을無料進呈코자하온 이希望하시는이는倂發症도 記入하시면 其倂發症에該當한 雜誌를 보내드리겟습니다 昭和八年八月號부터 十年八月까지 二十四冊이잇쓰며送料一冊一錢五厘는 밧겟습니다 療養이나 轉地에 對하야 相議하시려는분은 遠近을不問하고 旅費만(實費)주시면 곳進拜하겟스며 昨年轉地同伴하야 看護한經驗도잇기에 實費用만 支給하면轉地同伴하야 看護도하겟습니다 基督의母라는 冊도누구에게나 드리려합니다
京義線汗浦驛前 金廷洙

나의關心事 — 老天의惡戲

嚴興燮

해마다 여름만되면 朝鮮은 旱災로亡하고 水害로亡한다 三南大水災의不祥事를 일으키여 數百萬農民의 가엷핀 복음자리를하로아침에 홈쓰러간 三四年前의 洛東江七百里의 水害記憶이 아직도 새롭거늘 今年 또水害는 例年以上 그度가 激甚한모양이다。

水害뿐아니라 颱風、暴雨로말미암아 農作物의 被害는말할것도업고 山岩과 防築이문허지고 家屋이崩壞되어 人畜의 死傷者 날마다 그數를 헤아릴수업지안흔가!

南鮮一帶가 양으로 天災地變을 되푸리 하는가하면 北朝鮮地帶는 怪候가纖續되여 七八月한여름에 서리가 나라고 甚한곳은 어름이 얼엇다니 이 어이한 自然의 惡戱인가! 自然은 이러케도 이땅의 百姓에게 애매한 채찍질만 할것인가?

各新聞은 다토어 水害慘害義捐金을 募集하건만 度를 거듭할때마다 그成績은 數字的으로 低下만해간다 이것이決코 無理가아니다。義捐도 한두번이지 제발등의불도 못끄는판에 어찌남의불을 끌수잇스랴 가난한 줄치들로써 罹災民에게 義捐해주는實로 그것은 蒼海一粟에 不過하다

三億四千百餘萬弗의 巨額과 十餘年間의長時日과 延人員數千萬勞働者를 動員시켜 게다가 勞働者數의 八割以上을疾病、負傷其他로 死者를 내이고도 完成하고만파나마運河工事와가튼 自然征服的인 歷史的壯擧도잇다면 江川의氾濫이란, 記憶이 이땅에서 벌서 사려저바렷을것이아닐가!

해마다 여름만되면 이러한 關心이 거의 本能的으로 용소슴처 올라오군 한다。

× × × ×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登攀의 高山衛生學的考察

④ 醫學博士 申聖雨

【第三】素質

高山病發生에는 體格營養及年齡如何를 不問하고 걸리수잇는것이나 一般的으로보아서 脂肪過體에 發生키쉬우며 女子는 男子에 比하야 二、五倍에 發生率을 볼수잇는것이다고말한다 또 職業的으로 보드래도 勞働에 從事한者 또는 案內者에는 적고 登山經驗者에게는 發生率이 少하며 또不眠 心身過勞者에 多數가되며 結局에依한者는 徒步行進者에 比하야 적을것이다。

【第四】高山病의原因

高山病의 原因에 對하야는만흔 學說이 잇다 或은 血液循環不平等說 或은mosso氏의 炭酸瓦斯減退說 神經機能說 或은 氣候說 或은 氣象에 關한說 或은 植物香氣說等이 有하다 또 예전부터 氣壓의 減退가 直接原因的 關係가 기픈것을 論述한 學者가잇다 그러나 如此한諸學說은 學會의承認할수업고 다만 現今 가장 信用될만한것은 酸素缺乏說이 有力한것이다。低壓하는 高山氣壓과 同一한 程度의空氣속에다 사람을 너허두고 그속에 酸素瓦斯를 注入하면 그사람이 發病치 안코 健在하며 또 航空家가 酸素瓦斯를 携帶呼吸함으로 因하야 高所航空에 堪當할수잇는 事實로보드라도 또山岳病發現時에 酸素吸入을 實行하야 山岳病을 治療할수잇는 事實로보아서 山岳病의 原因이 酸素缺乏으로 因하야 發生된다는데 疑心할餘地가업는것이다 即 550米(1800呎) 高地에 이를때마다 酸素의 分量은 一分之一로 減少된다 故로 其比率로上昇하게되면 上昇할수록 酸素量이 減少되야 所謂血液酸素缺乏症을 이르키나니 酸素缺乏의結果 如何한 變化가 體內에 이러나서 山岳病의 原因이 되느냐고말하면 酸素가 缺乏하면血液內乳酸이 增加되야 이 乳酸이呼吸中樞를 過度히 興奮식이면 呼吸이 促迫하야저서 血液內 炭酸瓦斯의 減少 血液의『알카리』血症을 이르키게되면 赤血球는 容易하게 自己가가진酸素를放出치못하게되는故로 一層더 酸素缺乏症이되는것이다 多幸이도 우리生體內에는 生物의適應的調節作用으로 高山地에이르면 赤血球가 增加되야 酸素攝取를 活潑케한다 特히貧血者는 一層더速히酸素量 攝取함으로 酸素의 缺乏을 調節할수잇는것이다。

白頭山域에서發生될만한山岳病에對한管見

大抵 高山地帶에는 氣壓이 希薄하며 酸素가 不足하야 모ㅡ든 山岳病特有한 病症을 發하는것은 明瞭한 事實인것이나 登山者의 個人的體質關係 季節關係 氣候關係 氣象關係等 여러가지 條件如何에 따러서 極히輕한 頭痛 或은 若干의 倦怠症 輕한 程度의疲勞感으로 끗치고마는것도잇슬것이요 또比較的重症으로 呼吸이 困難되며 失神狀態에 빠지게되는수도잇슬것이다 如此한 程度의 病症이 直速下山함과 同時에 消滅되는수가만흠은 무론이나 一時的一過性의症狀은 그것을 山岳病(眞正한)病인지 또는 他種原因에依한것인지도 分揀키前에 無心히 放過하는수도잇는것이다

山노피가 적어도 七千呎以上高地帶에 비로소 發病한다는說에依할진대 白頭山登山者에잇서서는 無頭峰地帶로부터 天池에이르기까지의 經路에서 特有한 高山病症을 볼수잇슬것이요 또 宗더極端的으로말하면 天池附近地帶에 적어도 一、二日間을 滯留하지아니하면 特有한 高山病의發生을 볼수업스리라고 筆者는 말하고시픈것이다 然이나 其以下地帶에在하야 即神武城으로부터 無頭峰間 高原地帶도 大略五六千尺인 以上 特殊한 病症을 못보앗느냐고 말하겟스나 全團員及警察隊人夫等 一行은 大槪登山의 經驗者요 初行者는업는만큼 比較的親鍛된 體質임으로山岳病을 이르킬만한 最低高原地帶에 잇서서는 아모障害도 업시 通過하야온줄로 밋는것이다 然이나 一一히 筆者가 問議치 아니한만큼 記錄치못한것이나 若干의 愼重한感을 가진분이 數人잇섯든것으로 보겟스나 이까말한바와 가티特有한 山岳病은 나타내지아니한것만은 事實이다

無頭峰一泊時 消化器病으로食慾不振者 及下腹痛을 發生하며 泄瀉를 하는者가 比較的만히發生되엿스나 山岳病 特有한 症으로보면 惡心嘔吐 食慾不進 便秘鼓腸(까쓰안나오고 腹部膨滿한症)이라하겟스나 여기發生되엿든 消化器症勢中에는 高山病症으로서 特有하게 便秘症이 有한者 또는 惡心(조곰두여두여한症)이잇고 消化劑를 服用하는者가잇기는잇다 그러나 모ㅡ든山岳病症을 比較的具備한 山岳病者는ㅡ人도 내지아니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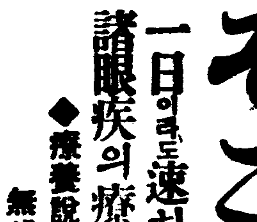
放心하면痛苦

◎청명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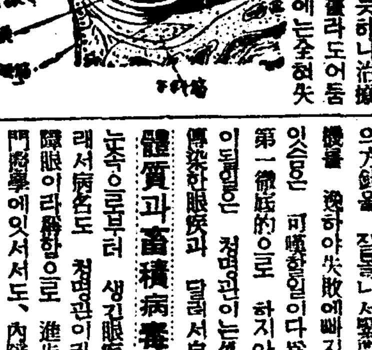
一日이라도速히곳처야하……

諸眼疾의療法에對하야

◆療養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十五夜明月 이라도、구름이끼면보이지안는다。內障眼은瞳孔에구름이낀다。그로하는 色에따라、白內障、綠內障、黑內障이라고 病名이달으다、청명관에걸녀 ... 治療하지아니하면 ... 乃終에는全然失明되여世上이暗黑으로되는사람이 ...



如何한性質의眼質 인가

그原因과病理를 大略알지못하면 日常의 治療養生方法에도잘못되거나 全혀못하는수가잇고도治療의方針을 잘못하야失敗에빠지는사람이잇슴은 可嘆할일이다 爲先患者가 第一徹底的으로 하지안어서는안이될일은 청명관이는外部로부터 傳染한眼疾과 달러서自己의

體質과畜積病毒 때문에 눈속으로부터 생긴眼疾이다 그래서病名도 청명관이라하야 內障眼이라稱함으로 進步된眼科專門治療에잇서서도、內障眼에는外用藥보다도 內服藥이 適當하다고말하니

眼症의內服藥 으로愼重

청명관이되는眼疾은 처음에어떠케될가?

청명관이、其他眼疾의 原因과 病理의알기쉽게詳細한것、飮食物의可否、還元法日常의養生法의 注意에이르기까지 懇切히쓴 說明書는、無代送呈中이니、兵庫縣明石市岩屋神社前進光堂本家로朝鮮日報에서보앗다明記하야 藥書를 請求하시라 곳全部無料送呈함

脊髓病 척수병

一生의後悔업도록 今日곳藥書를

脊骨變形　骨腐敗症　骨節痛　化膿腫症　痲痺　땅기는症　류마치스　腦의障害　神經痛

脊髓가아래로延長하야、背骨의中을한갈내색기와가티通하야、知覺神經과運動神經의中樞인脊髓로되여잇는、腦髓의作用이나、뜨거운火箸를주인때、생각할새도업시곳손거나 다리가맛그러진瞬間에、넘어지지안이랴고 하는等敏速한擧動은、脊髓神經의機能인故로、脊髓病에걸니면、陰險可恐할病毒때문에、身體의柱礎인背骨이漸漸굽어서佝僂로되는等、身體의姿勢가부서지는同時에脊髓가病的變質되여甚한것은썩어서膿汁이되고 知覺神經과運動神經에、全身的故障을生하야 ... 이放心못할脊髓病과、若年甚한류마치스神經痛에有名한良藥이잇다 ... 根治안되여病은도리여進行惡化할뿐이니、決心하고、病이되는原因인體內의病毒을全部掃淸치안으면안이되니다 게을니하지말고、一日이라도速히適當한療法과良藥을選擇함이緊要하다、等閑히하면意外인不具廢疾로되는此病은、年少者에만흠으로特히保護者父兄은勿失好機로 注意하시기바라나이다。兵庫縣明石市中町本通太平堂脊髓藥本家로便紙하되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藥書를주십시요、說明書養生法全部無料로送呈합니다。

再發의危險을避하야……

腦溢血中風 (自宅治療)

四十歲에걸나는

動脈硬化、高血壓의解決

㊉

中風症의한숨 이라고한腦溢血中風은한번나엇드래도、再發하기쉬운性質의病으로再發하면 반다시、最初보다劇甚하야저서、再發後에죽는것이오、엇다生覺하야서全快까지한분이再發하야서、生命까지일허버리는일까지往往잇다。

一家의礎石인 사람이업서지면、家庭은 暗黑하게되야서財産은散財되고 遺族은 悲慘히도彷徨하게되오。그리하야 한번中風에걸린분은、普通身體와는 달으게注意하야서、再發치안토록治療法이 重要하오。그療養法을하는데도 中風에對한注意를으로고 ... 하야、도리여 害된일까지잇서서

多大한金 額을 使用하야도 無謂하되고、回復이안되는後悔하는일이잇소。도日常食物은그맛이아는바와가티成分이들여서、가운데는 特種의性質을 가지는것으로、中風患者에 好不好가잇서서直時病狀에 關係됨으로 그選別法이肝要하오 公益을爲하야모ㅡ든詳細를 여기말하고십흐나 遺憾이나紙面이有限하야希望하는분에特히仔細한것을 親切히直接送呈하겟소그內容說明書는

無料送呈=內容

四十歲頃부터 만흔動脈硬化症、高血壓의原因으로일러지않고、도自己가獨自的療法을가르그豫防、젊어지는法을實際有効的으로 指導하고 터구나 中風의發作을警戒하는中風血統의人、多肥肥滿의中風體質의人、神經質人、酒煙을조와한분、平素머리만히쓰는분으로도中風에안걸닌 安全豫防法으로알이고 現在中風에걸려서잇는분을爲하야는 中風에對하야알지안흐면 안되는重要한것을 一一히注意하야 飮食物의 조흔것、납분것을區別하야自宅에서 돈과 時間 손을덜게하야 只今까지 만흔同病者와조와하는治療法을 곳되게親切히해寧하야等閑히할수업는有益한것이다。

希望하는분은 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照會하시면 創製者加古思兵衛氏는明石市에서 表彰한 奇特한人으로 特히中風患者의救濟에熱心으로 今日까지도多數의同病者로부터 深甚한感謝를밧고잇소 한번거저한 中風患者라도治療良法을어더내게되고幸福한活動의몸이되야 長生하여잇는분도적지안흠으로 悲觀은禁物이오 早速히藥書에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서兵庫縣明石市東戎町順神堂本家에直接照會하시오。

連載野談 (不許複製上演)

布囊記 〔究〕

申鼎言 作
金龍超 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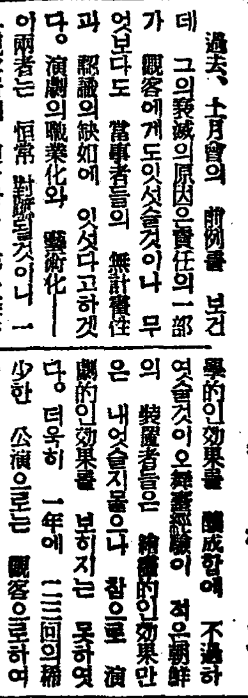
섬의잇는련에 (三六)

두목도적이 제비뽑는짓을 반대하고 뻡뻡 이러서자 여러도적들도 다가러 일어서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고 고개를 내두르면 그래그여코 저예의씨를 독차지한단 말이야。 다가를 젊은 사내놈으로서 어엽뿐 계집을내 노켓다 할놈이 어듸잇담!』
하며 그여러 도적중에도 섬미가 팔팔한 도적이 두목도적을 향하야 상엇대질을하며 뎀벼들엇다。
『이놈아 뵈는것이 업나 누거 상엇대질을하며 뎀벼드니。』
하고 두목도적은 손을 뻗게며 들고 그뎀벼드는 도적의 뺨을 후려갈겻다。
『아니。 이게무엇이데 남을 때릴가?』
하며 그도적역시 주먹을 쥐고 두목도적을 후려갈긴뒤 뎀벼들어 서로껴안고 이리뒤치락 저리뒤치락하면서 땅에서 떼굴떼굴 굴엇다。
다른 여러 도적들도 은근히 그 두목 도적을 미워하야 참을말리는체하면서 주먹으로 두목도적을 갈금갈금 쥐어 박엇다。
두목도적은 더욱 분이 치밧처 주먹과 발길로 여러 도적들을 닥치는 대로 때렷다
여러 도적들은 필경 두목도적을 가운데 세우고 뺑둘러서서 뭇매질을하얏다。
『킥!。 킥!。』
이럿드시 두목도적은 거이 죽는소리를 내며 이리로도 씁어지고 저리로도 씁어젓다。
그중에 늙은 도적은 한여페서 큰 구경거리나 난듯이 그 여러도적이 치기도하고 맛기도 하는것을 구경하다가 역시 노한 음성으로
『제기。 참을려면 노놀 못시나 놀아노코 참국하든지 집어치우든지 해』
하며 크게 소리를 질은뒤 서름 툭툭 찻다。

이러케 젊은 도적이와에 여러도적은 한데 어울러저서
『어듸 어느놈이 죽고 마나보자』
하고 여러도적이 한데 어울려 뭇닥치는 바람에 마질놈도 맛고 안마질놈도 맛게되니 참을 말리든것이 도리혀 큰 싸움이 되엇다。
『자!。 구만들 두어。 계집년하나로해서 가튼 동무들끼리 이것이 무슨짓이야。 내가 조흔 방법을 생각햇스니 참만 그치면 말할테야!』
하며 젊은 도적이 그저야 뎀벼들어 여러도적들을 떼어노키도하고 끌려댕기기도 하얏다。
여러 도적들은 젊은 도적이 조흔 방침이잇다는 말에 귀가 번쩍드며 그늙은 도적이 만류하는것을 못이기는체하고 쥐엇든 멱살과 껴안엇든 허리를노코 각각 이리저리 떨어저안젓다。
『홍홍!。 홍홍!。』
하는 갑분 숨소리는 이구석저구석에서 연니여 나왓다。
얼마뒤에 그섬미 급한 도적이 늙은 도적을 바라보며
『자-대관절 무슨말이요 말하오。 그말듯고 좌우간 잘되든지 못되든지 도든 어느놈이 아주 죽어버리든지 살든지 양단간에 끗을 내게。』
『그러케 막말을할게 아니야 속담에 좋미봉당도 저실호면 안먹는다고 저 새의씨게 골어 보찬말이야。』
『무엇을 못는단 말이여?。』
『다른게 아니라 나는 빼노코 다른 동무들중에 마음이 드는 사람을 골러 잡으라고 물어 보잔 말이야 그래서 누가마음이 든다고하면 이말 저말할것업시 떼맥기고 우리는어서 눈아먹이나 해요。』
하고 늙은 도적이 가장 신통한 폐나 생각한듯시 말하며는 어 여러말것을 도한 재촉하얏다。
여러 도적중에 얼굴이 반반히 생긴도적이 죽나서면서
『올아。 그것좀말이야。 자!。 좀 어보세。』
하고 제후소저의 의향을 물어보자고 서둘엇다。
『이놈들아 물어보기는 어듸들이 무엇을 물어 봐!。』
하며 두목도적이 여전히 반대하얏다。
『흥 자식도 여전히 곤대짓이란 말이양。』
하며 그 어엽부상스런 도적이 코우숨을 첫다。
그리고 제후소저의 아프로가서 들러다보면서
『자!。 들어。 마음에 드는사람을 얼는 말해요。』
하고 제후소저가 말하기를 청하얏다。
『오옹 어서속아라。 떠돌기 실타!。』
하며 제후소저는 울울 깨드러는듯한 목소리로써 호령하얏다 이때 두목도적이 뚜놀을 따 불룩코 안젓다가
『조!。 여후가를 별볼 죽이면 그만이야!。』
하며 칼을 들고 제후소저에게로 달려들엇다

☆曆☆
九月四日(金) 舊丙申七月大(十九日) 己丑·火·晦·執
●陰曆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廿三日)

演藝



新劇運動小論
演協의創立과그任務 (下)

吳 楨 民

過去、十月會의 前例를 보건데 그의衰滅의原因及責任의一部가 觀客에게도잇섯슬것이나 무엇보다도 當事者들의 無計畫性과 認識의缺如에 잇섯다고하겟다。 演劇의職業化와 藝術化——이兩者는 恒常 對蹠될것이니 一은觀客層에 迎合함을 第一條件으로하고 一은 演劇의純粹性을 高調함에잇슴은 周知한바와갓다 그러면 여긔에 問題될터는 演劇의藝術化를 어떠케 理解할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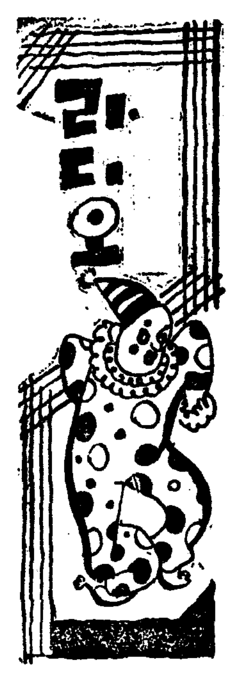
在來로 存在하든 演劇이란 多分히 非藝術的인 要素(娛樂、營利、宗敎、政治等)가 內包되엿슴으로 그들을 藝術的으로 純化하려는것이 即『新劇』이라고 물어왓다。 따라서 知識階級을 中心으로한 一部의 觀客層은 近來까지도 演劇의 徹底的인 純粹化를 要求하며 非藝術的인各要素를 排擊하여왓고 그의當事者들도 그것을 信條로 녀여왓다。

그러나 그것은 結局에잇서서 觀念的인 理想論에 不過할것이오 또한 昨日의觀客層은 벌서 移動되면서잇다。 그들의 意識의 成長過程에잇서서 今日의新劇은 非大衆的이오 非演劇的이라는命題미레 魅力을 喪失하게 되니 一方 新劇의 當事者들은 漸漸 觀念에 昇華되어서演出者는 文學的인效果를 釀成함에 不過하엿슬것이오 舞臺經驗이 적은朝鮮의 裝置者들은 繪畵的인效果만은 내엇슬지몰으나 참으로 演劇的인效果를 보히지는 못하엿다 더욱이 1年에 [三回의稀少한 公演으로는 觀客으로하여금 그의存在조차 稀薄하게만들 따름이다。(實例를들면 中等以上의 態度를가진 사람의大部分이 新劇을 新派와 同一視함에는筆者도 놀나지안할수업섯다)

四

여기에잇서서 今番「朝鮮演劇協會」誕生의 意義性을 말하려하는바이니 上述한 여러가지 事情을 綜合的으로 克服함이 아니면 안되리라고 自信한다。 말하자면 在來의 新劇에 좀더 演劇的인 魅力을 갓게할것이며 非藝術的이라 稱하는 諸要素의 어느程度를 大膽하게 眞摯하게 消化시키는데에 그의本質的인 使命을 發揮하게될것이 아닌가? 그리하야 觀客을適한 企業과 技術者들의 生活保障을 考慮하므로써 新劇의 專門化(職業化와는 다르다)를 目標로한 規察한 公演을 가저야할것이다 그것은 決코 新劇의 卑俗化를 招來할 理由는 못될것이라고생각한다。 도리혀 新劇의 絶對的인 純粹性의 追求야말로 黃昏街에서 저녁노을을홀다고 昇天하기를 願하는 어리석은 詩人의 感傷性에 不過하다。

우리는 新劇을 肉感이 나는 現實的인 實際的인것으로 取扱하려한다。 그러타고 해서 追從的인 俗物性이 그中에 엇서서는 안된다 不知不識中에 低級한 「넌센스」에 吸引되려는 觀客層을 權威잇게 獲得함에는今後의 「朝鮮演劇協會」會員 各自의 舞臺를通한 實踐만이 그에 應答할것이다 끄트로 筆者가會員諸君과함께 讀者諸氏의아페맘하고저함은 演劇人으로서의 노른敎養을 갓도록 努力할것이며 素朴하게 着實하게 그리고 全熱意를 舞臺우에 傾注하려는바이니 先輩와 讀者諸氏의 鞭撻과 支持를 바라마지안는다(了)



四日 (金曜)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가을과屋外運動』 李富鉉
◇同七時三〇分 講演『朝鮮舊書의美點과弊害』 習成高普 黃義敦
◇同八時 五峰山歌外 一、五峰山歌 二、에헤야 三、밀양아리랑 細笛 高一心 奚琴 姜鶴洙 李忠善
◇同八時一五分 (東)室內樂 奏 鳴曲D短調……弘田龍太郎作曲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단테 메누엣트 피나-레 빠이올린 杉山長谷雄
◇同八時四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時調 金花香 金美花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피아노 제-ロ스단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大夫 나、瀟湘八景 沈相健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이야기 中田淸一
◇同六時二五分 趣味演講 鈴木武雄
◇同七時三〇分(東) 趣味講座
◇同八時(仙) 俚謠 一、아이누古謠、太田도리와 悔川시우가네 二、追分
◇同八時一五分(東) 室內樂 杉山長谷雄外
◇同八時四〇分(東) 小唄 菊池 정조·단 마리 라디오·코리
◇同八時五〇分(東) 長唄 望月美惠子外

五 日 (土曜)

◇午前一〇時 野球試合實況!! 全朝鮮野球爭霸戰!!—京城球場으로부터—
◇午後六時 童話 一、童唱드리고지게 二、同씨 三、獨唱새야새야 四、齊唱선반의사과 五、獨唱 우리집 六、齊唱 汽車 七、獨唱 참새 八、齊唱 고향하늘 伴奏 金泰哲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新羅의古蹟』(全鮮中繼) 末松保和
◇同七時三〇分 講演『東京오림픽과國民의覺悟』
「文部大臣 平生釟三郎」 譯講 總督府通譯官 西村眞太郎
◇同八時 歌曲 一、界面調 二、羽調 三、初數大葉 四、弄 五、編 金相淳 金德鎔 洋琴 金壽根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野談『神瓶』 朴尹王
◇同九時 赤壁歌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平壤歌 四、제비가 一枝蓮 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連成獨語 講座(二十)
◇同一〇時三〇時 主婦時間 蒸地 가데 經音樂 菊池滋彌外
◇午後〇時五分(東) 童話歌劇 指揮 高橋기요시 音樂 鹽羽오게스류라 張信一郞
◇同六時(名) 童話歌劇
◇同六時二五分 講演 末松保和 가을에우
◇同七時三〇分(大仙) 浪花節 는버레소리
◇同七時五五分(東) 라디오·버 라이어티 風流俱樂部同人

六 日 (日曜)

◇午前一〇〇〇 野球試合實況 全鮮野球爭霸戰……京城球場으로
◇午後六〇〇 하-모니카三重奏 一、나포리의노래…차이코프스키作曲 二、水夫의사랑 三、따뜻-江의잔물결…이봐노비치作曲 四、레오리라 五、세레나-데…구노-作曲 金文珍 權五喆 金萬英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明倫學院講師 安寅植
◇同七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꿈의延長』一場 配役——(發聲順) 社長 朴貞植 給仕 金桂永 南植 楊英 社員 林流 同 C B A會社員 李承 同 趙暐 女社務員 田曉 貞姬 青踏 演出 尹白 效果 李昌 音樂 李信
◇同八時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夢金浦打令 三、寧邊歌 四、山念佛 五、개성난봉가 六、변조난봉가 唱劇調 金玉仙 金永根 春香歌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天下泰平 鼓手 韓成俊 丁素姬 金元變 離別歌
◇同九時 俗曲 一、山念佛 二、打令 三、神方曲 四、굿거리 細笛 韓成俊 大笒 方龍 奚琴 金德 杖鼓 池龍 九鎭 鉉俊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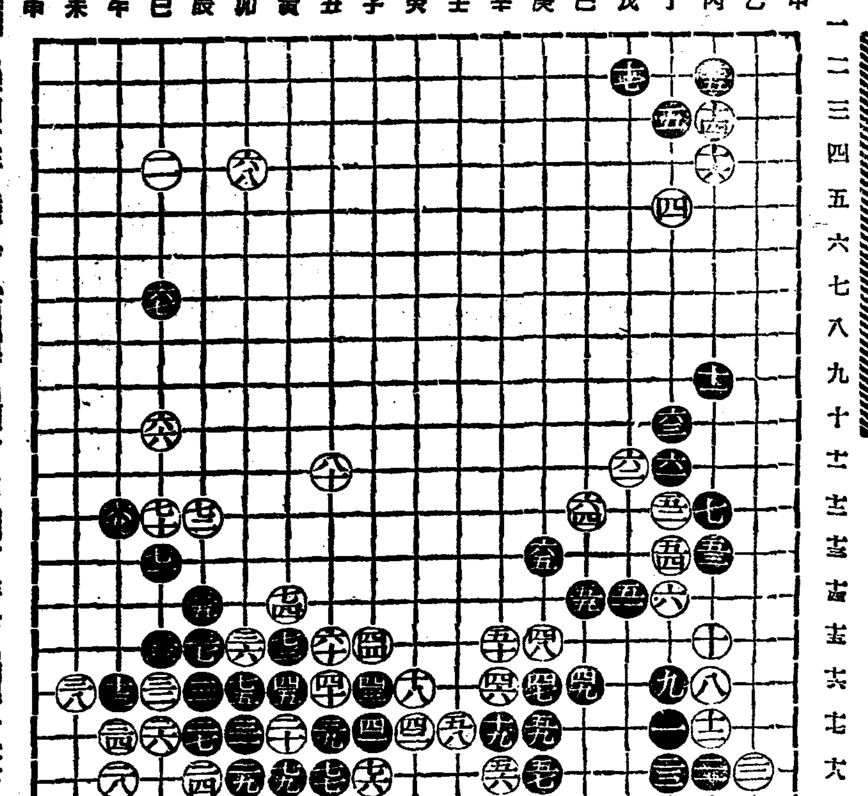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 —滿洲로부터—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大久保玄一
◇午後一時二〇分 (東) 邦楽調 岩井条三郎
◇同二時五分 (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六時 管絃樂 DK오케스트라
◇同七時三〇分 尺八合調 高山麗山 虫明圭山 玉井勢律山
◇同七時五五 (東) 뉴-스演藝
◇同八時二五分 (東) 寄席中繼 柳亭左樂 春風亭柳好外

×× 本社主催 ××

圍碁對局譜 —5—

白 尹周炳
黑先 柳鎭河

● 庚의十三
○ 巳의十
● 巳의七
○ 卯의四
● 午의十二
○ 巳의十二
● 巳의十三
○ 辰의十二
● 寅의十五
○ 寅의十四
● 卯의十六
○ 子의十八
● 丑의十八
● 丑의十九
○ 寅의十八
● 丑의十一



權文氏評曰 黑庚의十三 先著은 小飛守로 보이다 自己의十八着을 顧하고 黑이行할만한 局面으로 着做하노라 黑이午의十二三路를 粘合하고 寅의十五引出도 念務 가야넘뜻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끌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을려도 過度한讀書로 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릿하고어질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낫는名藥입니다 마일頭痛으로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누구나 노-신을 平한몽마잡수어보십시요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거뜬하게 잘낫는것이 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으로 언제나떨어지지못할藥이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계시거든 꼭이 노-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藥店에잇습니다 비슷한 藥品이 만히나왓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요사이노-신과 사실때 登錄商標帽子印잇는 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二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朝鮮日報社釜山支局
電話二八九七番

이것만잇스면 세상에 맛업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업서집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도)

毛髮은女子의魅力

아름다운毛髮은 손질을 잘한 結果라는것을 注意하여주십시요! メヌマ가주는美와光輝와 香氣를갖고 훌늉한 당신의 毛髮을 자랑하십시오!

레몬精油를 配合한 純良 無比의金質植物性整髮料

웨-부로하기前에 가-루로하기前에 샴푸-하기前에 頭皮와毛髮에 メヌ마를 발라두면 皮의乾燥를 防止하며 고비듬을 업시하며 美麗한效果를 가장顯著히 합니다!

東京 大阪 井田京榮堂

MP-15

靑春座公演第九週 八月二十七日낫부터晝夜
一、悲劇 林仙圭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 續篇 三幕
滿都劇界의눈물을잇든대로짜아내인名作悲劇『사랑에속고돈에울고』의續篇이萬人의待望아래그여히上演하게되엿다。生命보다도重한사랑을빼앗기고마츰내는그사랑의원수를칼로찔너殺人犯의罪目으로끄을니게되엿스니 ……
二、新劇愛派
午前二時부터九時까지 二景
三、喜劇 以熱治熱 一幕五場 洛山人作
西大門町 電光 三三二
東洋劇場

初秋劈頭에代末聞의名畵週間!! 九月四日부터超特別大興行!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위레-스폭스氏監督! 邪神島
丸番目の客
大都映畫社超特作時代劇 伊之吉時雨笠 阿部九州男主演 石山稔監督作品!
黃金町 電光二三九五 優美館

九月四日부터三日間大公開 最大名篇上映週間 每日晝夜三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繼續映寫 入場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傑作名篇 아네스도、B分도삭크氏監督 폼페이最後의날
サンデイ每日所載 原作 海音寺潮五郎氏 監督 中川信夫氏 時代劇 恥を知る者 市川右太衛門 嵐寬壽郎
次週上映豫告 心の誓手 ロイドの梅蘭揚運 男の敵 洞窟의女王
鍾路五丁目 電光一三〇〇 第一劇場

◇九月三日부터三日間 料金階上二十錢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祭日은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七時四十分始映
◇와나쇼-社超特作全發聲映畫 空中活劇 落下傘 監督 알프렛드·그린氏 主演 싸다그라스·페아방크스氏
日本最初의바라슈-트映畫이다! 人氣聯盟飛行機四臺!
◇와나부라사-스社特作全發聲版 깽그劇 民衆의敵 監督 윌리암·웰맨氏 主演 제임스·캐그니氏
時代劇 ◇新興키네마特作品 大利根의朝霧 監督 後藤岱山氏 主演 嵐寬三郎
黃金町 電話一三三番 浪花劇場

第二日特別大公開 シーズン第一陣に放つ超??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午前十一時三十分 第二回 午後二時〇分 夜之部 六時五十分
新興キネマ特別提供 阪妻立花プロ提携作 原作 林不忘生前作 監督 石上 魔像
報知新聞連載 原作 小島政二郎 監督 田中重雄 オールトーキー 薔薇ならば 伏見信子、河津清三郎主演
廿世紀フオツクス社 原作 アレン・リヴキン 監督 アラン・ドウアン 洋上魔 エドモンド・ロウ主演
永樂町 電三〇〇 中央館

慶南道內農作被害 二千餘萬圓突破

米棉作의被害만千八百萬圓

災民生途去益暗澹

【釜山】금번 남조선일대를 엄습한 미증유의 대폭풍우로 말미아마 경상남도내에는 말할수업는 만흔피해를 당하엿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그중 농작물(農作物)피해가 더욱 우심하야 미작(米作)은 평년작 수확고이백만석(다현미)(玄米)의 삼할오분인 칠십만석 감수로 그금액이 약열칠백만원이고 또면작(棉作)은 총수확고인 삼천사백팔십칠만근의 칠할오분인 이천륙백만근의 감수로 그금액이 약사백팔만원이고 기타 전작물(田作物)은 수확총액인 오백만원의 칠할인 삼백오십만원의 감수로서 총피해액이 무릇 이천이백오십만원에 달할터이라 한다 그런데 그상세한것은 방금조사중이라 알수업스나 상월까지에판명된 피해를 추산하건데 전긔와가타하며 작물별로 세분하면 다음과갓다

米作 도내총미작면적(米作面積)십칠만정보에 평년작 수확고가 약 현미이백만석 되는동 수확전무될면적이 약 륙천정보로 그수확예상고인 약 팔만석이 감소되고 약 일만오천정보가 오할감소될터이라 ... 그외남어지면적 ... 최고한도로추산하더래도 ... 감소되리라한다

棉作 도내총면적이 ... 수확되는데 그중수확전무될것이 ... 감수되고 그외남어지 ... 감소되리라한다

其作田作物 ... 감소될예상이라하야 ... 감소되리라 한다

商工會頭一行 災地襄陽急行

【元山】이번강원도 해안일대를 엄습한 폭풍우의 피해는 말할수업시 ...

連日暴注하는魔雨로 靑丹一帶水國化

交通杜絕、田畓等浸水

【靑丹】해주군청단지방에는 연일계속하야 나리는비는 지난일일부터 동삼일오후에서 까지 폭주하야 홍수로수국화한 해주와연백(延白)사이에는 자동차의 통행이 두절되엿는데 나리는비는 아즉도 근치지 아니하얏슴으로 일반은 매우공포에쌔허잇다한다

靑丹市에물亂離 街路엔激浪滔滔

청단지방의 큰수해는 긔보한바어니와 일시는가로우에 넘처흘으는 도도한격랑이 로변점포로 침입되야 집집마다 큰소동을 일으켯스며 개천가에잇는 대호잔들은 침수가옥은 가일각 루실의우험까지 잇게됨으로 당지소방조에서는 조 ...

汶山에서「늑대」捕殺

【汶山】파주군파평면덕천리(坡州郡坡平面德泉里)부락일대에는 「늑대」가 빈번히출몰하야 가축피해가 막대하든바 얼마전그부락 남궁효(南宮孝)집에 큰개만한 늑대가 나타나 그집닭한마리를 먹고잇든중 주인은 대경실색하야 고함을지르든바 일부락이 출동하얏스나 감히습격하고잇든중 그곳청년 용사 남궁룡(南宮瓏)(二三)씨가 떡메로 늑대에 두부를 란타하야 그여코 살하엿다한다

咸南沿岸鰮漁獲 依然凶漁未解消

昨年同期의三分의一

【元山】함남수산계의 왕자를점령한 정어리(鰮)는 해변에비하야 약삼분지일밧게 안잡혓다 즉 지난이십륙일현재로 총어획고는 철만팔천륙백십이통인데 이것을 작년동기의 이십삼만오천 백이십사통에 비하면 실상막확 천이백십이통이나 멧지못하다 이것으로 벌써 함남일대의 어획은 흉어인것을 알수잇스나 가을어기가 정어리의 본격적어획이니만큼 그다지 비관할재료는 아니라고하나 파연활발할어민을 기뻐게할지 현재 상태로는 의문시되다고한다 이제이십륙일현재의 각지어획고를보면 다음과갓다

地名	昨年度水揚高	今年水揚
元山	三〇三〇	一六二
三湖	二七七〇	一八六六
前津	一〇二七六	六八八
新浦	一八〇三	一七一二
新昌	一七三〇三	一四〇〇三
遮湖	一七四〇二	一五九〇二
群仙	一一〇二九	一〇六三二
端川	一〇七〇六	六三六〇
計	二三五三四三	六一六五三

이상통계에서 원산외 오어통어를 엿볼수잇다

魚市場基地로 二百餘坪寄贈

【咸興】함남어업조합 ...

수산업도 ...

이 면도(面島)의 참보롱진한 원산에서는 원산부청을 비롯하야 각단체가 일치하야발흥구 아직에는 원산상공회의소 내에 ...

人妻에暴行奪金

犯人前科三犯의惡漢

【宣川】지난이일오전세시경선천군읍부천면(宣川邑蒲川洞)천리삼범리(李)(二八)란자는 이웃에사는 소송개인부중개인(仲介人)안김오옥(金玉)(二九)의 집에 드러가고 업는틈을타 내방에 침입하야 동인의처 장순녀(張順女)(二三)를 협박하야 강제로 동양화 제오후 소지하고잇든 금일원자신전까지 탈취하여 경찰의업대 범인은곳체포되여 방금취조를 밧는중이라고한다

安州高普寄附問題 畢竟訴訟問題化

"公""私"의相違로不履行한다고

期成會請求訴提起

【平壤】사립고등보통학교설치에 할권리가잇스며 사립학교를 조건으로 긔부금으로 긔부를응락한사람이공립으로 되엿는데 의무를 리행해야될가?의 펴통미잇고 그리고 일반이국히 주목하게되는 소송사건이 이일평양지방법원에 제기되엿다 원고는 안주공립고등보통학교 긔성회회대표 현평남도회의원 안주군안주읍칠성리(安州邑七星里)리관순(李寬淳)씨피고는 안주읍신의리(安州邑新義里)김병규(金秉奎)자호면화商

그런데 리관순씨의 소송내용은 안주에서는 안주읍에서는교를 설립하기로되여 긔부금모집을 한결과 김씨와 안씨도 긔부를응락햇스나 지불을하지안는다는것으로 물론 김, 안량씨는 긔부긔가 다르다는 것을 리유로 지불하지안는것이다 원고가 승소할지? 피고가승소할지? 재판의 진전은 주목되며 도당국으로서는 이문제에 대하여 방관의 태도를 취하고잇다

술먹이고奪取 소판돈一百餘圓

【宣川】선천군 산면 하단동(宜川郡山面下端洞)일천팔십일번지 리승의(李承義)(二六)은 가튼동리 림봉의(林鳳儀)(三二)가 소판돈일백이십원을 소지하고 잇는것을 탐내여 술을 먹여만취식힌뒤어지로 동행하야 자기집에 재우고 또돈주머니채 칼로끈어 빼앗고 도주하엿다는바 림씨는 일원을 내버렸다는바 봉의에 도라고 ... 고소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 ... 任人事次 本報咸興支局來訪
◇ ... 被任人 ...
◇白宋仕氏(龍川郡 ... 面長)과當地
◇ ... 本社 ... 支局來訪

寄宿舍專門의 女竊盜犯逮捕

【平壤】평양부내행정(幸町)김정 ... 여자는 제적작년부터 평양부내경창리(景昌里)고등녀성정학교 ... 숭의녀학교 ... 등각고 ... 수사에 ... 쳬포되여 평양서에 ...

道路崩壞流失로 十餘處交通杜絕

—所要復舊費만도一萬餘圓—

咸南道南部被害狀況

【咸興】지난이십팔일부터 동삼십일까지 내린호우로인하야 함남도남부지방에는 도로의류실붕괴된곳이 상당하만허 각주요도로교통상에 일대이상을 정하고잇다 원산도로관구사무소(元山土木管區事務所)로부터의 보고에의하면 현재교통이두절되야 한시각급히 복구공사를하여야할곳은다음과가티 평원선(平元線)등비선에 십팔개소 연장사백십메돌로서 복구비는 최소한도로구천구백사십팔원의 거액에달한다 이다 이제 각선로별로보면

◆平元線
德源郡豊山面、元山府八個所復舊費 一、五八三圓
◆元山會寧線
德源郡北城面一個所 二〇〇圓
◆京元線
安邊郡衛益面、培花面三個所 二、三六五圓
◆元山襄陽線
安邊郡安道面 六個所 五、八九〇圓

長霖과暴風雨로 農作被害廿萬圓

汶山地方大減收難免

【汶山】파주(坡州)지방은 금춘에는장우가심하고 이앙기에는한발이겨심하야 이앙률은 이만여정보에 달하야 농민들은 륙십여년전을 연상하고 잇든중 면적이 이한발은 지리한 장마로 변해 압두달이나 계속되고잇서 자연기온저하로 농작물은 심은그대로잇서 발육은 고사하고 도리혀 위축(萎縮)되는 동시에 도열병까지 발생하야 그피해는자못 널리퍼저 이십만원에 달하든바 지난이십륙일밤에 폭풍우가재습하야 문허지집도잇고 시내일부는 암흑화하여지고 출수개화기(出穗開花期)에 잇는 벼(水稻)에 막대한피해를주며 전남침수되엿든것이 재차침수되여 전멸 상태에빠저 농가에서는눈물뿌리면서 하늘을 우러러탄식하고잇다 그뿐아니라 기후불순으로 여러가지 전염병도 류행되어 벼마에 사로잡혀 허덕거리다가 생명을 빼앗긴 어른과 어린이들이 속출하고 잇다한다 그리하야 인심은 공포와 불안에싸이여 잇는대 금년장마는수십년에 처음본다고한다

◇星州水害畫報 (上) 一洞十五名의 慘死를내인 修倫面水成洞의 慘狀을일운 修倫面新亭洞 (中) 全滅을 當한 修倫市場 (下) 桑田碧海의 跡

爆發! 團體로個人으로 水害同情烽火

淚의同情金四十圓 元山支局에寄托

元山樓氏女高生赤誠

【元山】일차 어차로 엽습한금번 대풍수해로 말미암아 재지의참당한 리재민들의 생활현상은 목불인견의 처참을 극하여 각한에울고잇는 그들에게 따뜻한 구제동정금품이 모여들어이에인정미담의 꽃을피우고 잇슴은 나날이 보도되는바 어니와 지난일일에는 원산루씨고등녀학교(元山樓氏高等女學校)삼백여명생도와 동교직원일동이 푼푼이 모으든 삼십구원 륙십삼전의돈을 물의 동정의금품을 모아이것을재지리재동포에게 전하여 달라고 본보원산지국에 의탁한바잇섯다

婦人蓄米會서도 救濟金品寄托

【元山】형언할수업스리만치 참혹을 극한금번각지 풍수해의리재동포를 위하야 뜨거운 동정금품이 각방면으로부터 속속본지국을 통하여 재지로 보내여달라고 답지한다함은 수시보도하는바어니와 지난일일에도 원산부인축미회(元山婦人蓄米會)에서는 좌긔제씨의 열과성을모은 동정금을 동회장박순옥(朴順玉)동의원김현덕(金賢德)주현수(周賢壽)조명숙(趙明淑)씨등이 모아가지고 본지국을 래방하여리재동포에게 전달하여달라고 맛기고 돌아가섯다 임태순 우마르다 최경순 장수정 강순조윤달회 신유진 홍창열 박안나 리정순 김흥옥 김명숙 최치순 어상일원식、전경우 전박내 조명

天安에서도 水害義捐募集

【天安】천안에서는 각관계관청급 본보지국의 후원을 구하야 남조선리재동포의 처참한 정경을 동정하자는 목적으로 널리활동한다는데 동정하여주실 일반제씨의 편의를 도모키위하야 동정금품모집장소를 설치하고 일방유지의 동정금품을 기다린다고한다

義捐金品受付場所

숙 림종선 문유녀 김인옥 최태순 탁정녀 한상점 양래옥 조금선 류병인 이상각오십전식、차춘하 사십전、주인수 변보배 리근영 리영옥 각삼십전、김동화이십전

合計金 二十圓八十錢也

兼二浦邑民의赤誠 衣類百餘點、金三十餘圓을

本報支局에傳達依賴

【兼二浦】삼남지방과 령동지방에 천재로인한 비절참절의상황을 듣고 그저잇슬수업서 본보겸이포지국에서는 이에동정금과물품을 모집하엿는데 윤민의열렬한 정성으로 다음과가티 동정금과 물품이 다수모집되엿다한다

◇現金 金五圓金秉禧 ◆金二圓式金鍾鑄 吳鎭衡 ◆金二圓式李觀涵 玄泰入 張啓永 鄭桑萬 金寬容 崔錫衡 吳鎭淳 李鍾淡 李承念 林成福 吳鎭道 申德賢 金弘俊 張俊明 ◆金五十錢式朴相泰 李昌教 安璟獻 李秉德 金潤極 金鳳奎 金鍾國 鄭鍾新 韓錫模 金秉六 安鳳鉉 金明照 金潤瓊 ◆金三十錢式金 東 宋鉉宗 金鳳律
◇衣服 九十三點吳老婆會 姜孝宇 ... 勸業社七點三洋社

本報江西支局主催 義捐金品再募集

一、조선사어협회주남지부
一、천안군청급각읍면사무소
一、본보천안지국급기타신문지국

暴雨를무릅쓰고 義捐募集活動

【西井里】수천의 생명을빼아슨 남조선의 폭풍우는 아즉도 개일줄 모르고 방방 곡곡에 폭주하야 한숨을 의지할 집도업시 물에 떠보내고 가로에 방황하는 삼남리재민을 위하야폭우를무릅쓰고 열성으로 의연금품을 모집하는 눈물겨운 사실이 잇스니 진의군송탄면서정리(振威郡松炭面西井里) 주재소 대표부장(大橋部長)부인과 송탄면사무소 리용일(李容鎰)량씨는 구월이일 사정업시 내리는폭우를무릅쓰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의연금품을 모집함으로 일반시민의칭송이 놉다한다

【江西】나날이 혹심하여지는 남조선지방수해의 참보를밧고지난 신구일부터 본보강서지국에서는 「포스타」를 다수히 붓친 후 남조선수해구제의연금품 (南朝鮮水害救濟義捐金品)의 모집을 알리이자 각처에서 로소남녀간에 눈물겨운 동정이 답지케되여 본부원도 총동원하여 구제금모집에 착수하엿다 그러든중에 강서고등계(江西署高等係)에서 돌연 정지를 명하므로 부득이 금품모집을 정지하고 잇다가 지난 삼십일에 다시 랑국의 량해를 어더 모집케되엿는때 지방유지는 다수동정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二萬餘圓突破 護岸棧橋等被害

【咸興】지난달말경호우뒤끗폐어 어업(漁業)한 대폭풍은 함남도연안에도 상당히 혹심한피해를 끼쳣다 이일함남도수산계에들어온 보고를보면 신포(新浦)항과 동면연호리(蓮湖里)의두개소의 피해만도 호안(護岸)류실 신포(新浦)에 십이개소 련호(蓮湖)에 삼개소 합십오개소로서 피해액이 일만이천팔백원매립지류실(埋立地流失)신포에십개소 련호에 이개소 합십이개소에 이천팔백이십원이고 잔교(棧橋)파괴신포칠개소 련호이개소합팔개소로서 오천이백이십원으로 총계삼십오개소에 이만팔백사십원이나되다 이러케 한날에도 근백여척의 어선이 드나드는 어항(漁港)이 남을 망한 피해의는 ... 고소하엿다고한다

延安 水害救濟同情演奏會

▲時日 九月四、六、七四日間(雨天順延)
▲場所 延安東市場
◇主催 延安券番
◇後援 延安體育會 朝鮮日報延安支局

全朝鮮面對抗 씨름大會

△時日 九月五、六兩日
△場所 咸興女公普校前廣場
◇主催 咸興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咸興支局

平壤 力藝氣合術實演밤

▲日時 九月五、六兩日間午後八時半
▲場所 白善行記念館
◇主催 京城力藝氣合術研究所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愛慾의彼岸 【92】

李光洙 作
金康穆 畫

가튼 코오스로, 그때와 가튼 감격을 어더보려하엿다。그러나 헛된 일이엇다。강선생의 존재를 빼어노흔 천지는 혜련에게는 무의미한듯 하엿다。도로혀 더욱 가슴에 공허를 느겻다。

혜련은 다릿 난간에 몸을기대고 끄리치는 소들과 고기엿보는 황새들과 소리업시 흘러나려가는 물들 바라보앗다。그러나 그런것들은 혜련에게 아모 감동도 줌이 업섯다。

『가자』

하고 혜련은 길게 한숨을 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엇다。

『금강산을 들른들 그 어른을 어듸서 만나』

하고 혜련은 실낫만 희망을품엇다。

짐은 문임이와 김장로가 다 싸고 혜련은 시무룩하고 보고만 잇섯다。그래도 김장로나문임은 불쾌한 모양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매우 유쾌한드시 짐들을 쌋다。

택시를 기다리고 잇슬 때쯤해서 주상이가 산보나와던길에 들른드시 혜련의 숙소에 들렷다。그는 정복을 입고 구두까지 신엇섯다。그 구두가 저즌 것을 보면 풀밧으로 혜련을차자 돌아온것이 분명하엿다。

『오늘 떠나신다고요?』

깨까지 내어노흔 완피쓰를입고 짜른 양말을신어 볼룩한 장딴지를 내어노흔 여자들、그중에는 고의적삼에 대패밥 모자와단장하나로 아무러케나 차리고 이식전아침에 벌서술이 바장이나된 사람도 잇섯다。그 사람들은마치 모든 인사체면에서 떠난사람들 가탓다。그중에서 김장로 일행은 가장 점잔은 일행이엇다。김장로도 칼라、넥타이에점잔은 회색 양복、진 바지를입고、문임이나 혜련도 다 살이나오지아니하는 조선 옷을 입엇다。지른 보라치마에 노랑우리한생고사 적삼이 버레 검은혜련의 얼굴에 퍽 어울렷다。오늘은 단발한 그 머리를 나불나불하게 끄납으로 졸라매지를 아니하고 조고마하게 틀어서 더욱 단정한 새 아름다움을 주엇다。

주상은 처음에는 무엇 뒤차리에 안젓스나 김장로가 이야기를 하자고 자리를 내어주어서 혜련과 마조 안즐수가 잇섯다。주상이가 김장로겨테 안즌 동안에 다른 사람이 주상의 본뒷 자리를 점령하엿기때문에 주상은 무척 다행으로여겨서 송전까지 혜련과 마조안저서 갈수가 잇섯다。

김장로의 발론으로 원산을 떠나서 송전、장전、해금강등지에들러 별장터나 하나 잡고 금강산을 거처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작정이 되엇다。이계획에 대해서는 혜련도 반대할 말이 업섯다。그것은 강선생이 다녀간 뒤로는 혜련은 원산에 더잇슬 마음이 업섯다。바다에 나가도 재미가 붓지아니하고 산보를 하여도 시들하엿다。마치 텡 부인것 가탓다。

『모든것을 다 일흔듯한 텡부인 내 심사여』

혜련은 이러케 중얼거렷다。그러키때문에 혜련은 원산을 떠나는것이 조앗다。어듸를 가도 신통한 구석이 잇슬것 갓지아니하지마는 원산에 잇는것보다는 나을것 가탓다。

오늘 아침 여덟시 떠나는 원산을 떠난다는 날 혜련은 마즈막으로 헤뜨는것을 바라보고 바닷가를 걸어서 강사가 풀판으로、강선생을 만나던 날과 짝

하고 주상은 술른드시 물엇다

『옹、임문이오? 은올 우리는 가는 하고 넥타이를 조르면서 김장로는 대답하엿다。

『바로 서울로 가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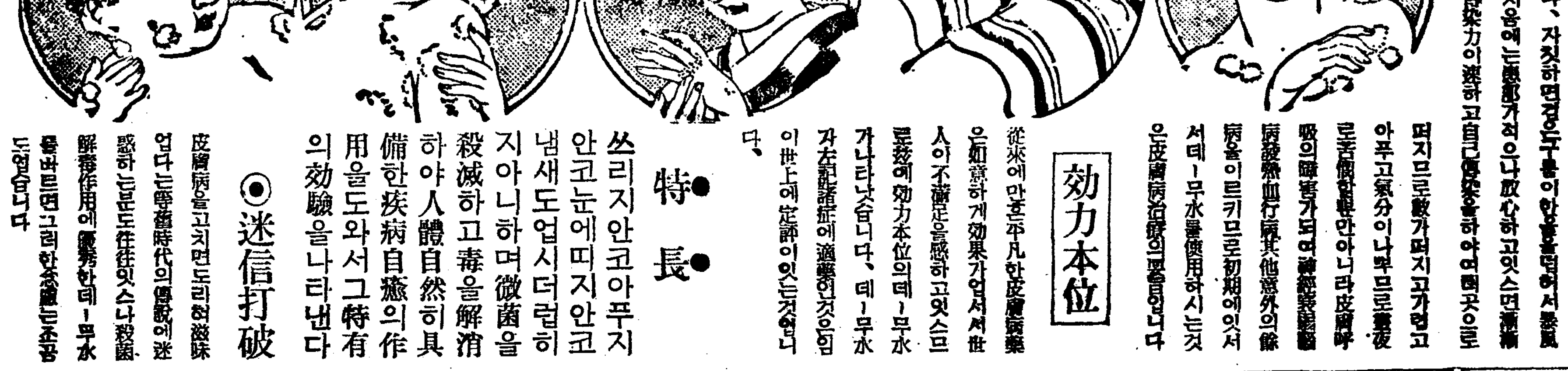
하고 주상은 혜련의 가는 곳이 알고시펏다。

『아니。송전으로、해금강으로 들러서 금강산이나보고 갈까 허구。일문은 여긔 오래 잇서?』

『아니오、저도 오늘 떠나게습니다』

하고 주상은 혜련을 본다。혜련은 이러한 말들드시도 아니할드시 우산 끄트로 마당에 무슨 글시자를 쓰고는 지워버리고 잇섯다。

정거장에 간성행 열차를 탈임바에 주상이가 모자를 자처 쓰고 씌은거리면서、가방 하나를 들고 달려와서 김장로 일행이 안즌 차에 올랏다。차에는 대개 피서객들이엇다。낫이 볏에 걸고 정강이가 나오는 짜른 바지들을 입은 사내들 어



主治効能

마른옴·음부습진·무좀·옴·태독·腫氣·진무른데·고름·농가증
헌얼룩이·버짐·唇肛門진무른데·여드름·죽은깨·벼룩·모기
박쥐·毒虫·빈대의刺傷皮膚漏

데-무水藥(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全國到處藥店에서 販賣함、萬一品切時는 代金을添付하야 左記發賣元에注文하시면直時送藥하여드림

(橫瀆藥만) 호니픽데-무水하라 指名하시고 求하십시요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本店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二五五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支店

田中醫學博士의創製로써 털나는데必要한、適當한殺菌、興奮、栄養의三作用을兼하야 과草木에 對한土壤、日光、肥料에도比할만한良藥이다。 바다시털이不足하고모양업는분은試用하시랍니다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全國藥店에잇슴。 說明書進呈前記東京藥院申込次第進呈

털나는약미나인

◎迷信打破
皮膚病을고치면도리허滋味업다는等舊時代의傳說에迷惑하는분도往往잇스나殺菌解毒作用에優秀한데-무水를바르면그러한念慮는조금도업습니다

特長●
쓰리지안코아푸지안코눈에띠지안코냄새도업시더럽히지아니하며微菌을殺滅하고毒을解消하야人體自然히具備한疾病自癒의作用을도와서그特有의効驗을나타낸다

効力本位
從來에만흔平凡한皮膚病藥은如意하게効果가업서서世人이不滿足을感하고잇스므로茲에効力本位의데-무水가나타낫습니다、데-무水자左記諸症에適藥인것은이世上에定評이잇는것입니다

皮膚病에는 무엇보다몬저 데-무水

蒼然한모양이에조고마한구룸이나타나면낙시질나가는漁夫는急히배를저어도라옵니다、자칫하면경우도구룸이한방울떠러저서暴風雨가되므로皮膚病도처음에는患部가적으나放心하고잇스면漸漸퍼저서大槪의境遇는傳染力이强하고自己일몸도속하야여러곳으로퍼지므로數가퍼지고가렵고아푸고氣分이나뿌므로晝夜로苦悶할뿐만아니라皮膚呼吸의障害가되여神經衰弱이라든가病毒敗血行病其他意外의餘病을이르키므로初期에잇서서데-무水를使用하시는것은皮膚病治療의要訣입니다

나치스公債政策

● 金融的背景內容

注目할것은 一九三三年에 新規投資額보다 減價償却이 만코 三四年後에 비로소 新投資가 增加된것이다 이新投資의增加도 民間事業界가 그것을 實施하는것이 아니라 中央乃至地方政府團體의投資活動이 旺盛을 全然 反映한것이다

【第三表】部門別投資 (單位=百萬馬克 △減案)

	一九三三年 投資	一九三三年 減價及償却	一九三三年 差引	一九三四年 投資	一九三四年 減價及償却	一九三四年 差引
工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公益企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交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住宅經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公經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 假數字(獨逸統計局統計年報一九三五年)

即 第三表에 依하면 一九三三年에 이미 七億一千六百萬馬克의 減價償却을 示하엿스나 其他部門의 工業部門에는 一九三四年에도 아즉 [illegible] 一九三五年에도 民間事業에는 아즉 [illegible] 一九三四年의 投資總額增加二十億五千三百萬馬克은 거의全部(二十一億四千三百萬馬克)가 公經濟에 屬한다 大體 一九三三年으로부터 三五年까지는 獨逸民間事業界의 整理期로볼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伯林景氣研究所의 生產指數는 昨年末에 大體恐慌前의 水準을 恢復하엿다고 最近에는 民間의 企業新設과 擴張도 若干進捗한모양인데 [illegible]

×

國家的投資는 先當金融의方法에 依하야 手形(換言하면 [illegible])으로充用되엇다 [illegible]

【第四表】手形流通高 (單位=百萬馬克)

	一九三二年末	三三年末	三四年末	三五年末	三二年三五年比較增
手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證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稅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註】一九三二年—三五年은 伯林景氣研究所四季報(三六年一、B)에 依함

그러나 이手形流通高가 增加한 同期間의 投資總增加는 六十四億三千百萬馬克이 比較하면 아직도 二十億馬克의 不足을 보인다 [illegible] 合計二十三億五千萬馬克에 達하고 十八億五千萬馬克을 占한다 [illegible]

이에對하야는 다음과 [illegible] 民間과 特히 外國關係에서 [illegible] 나치스政府가 [illegible]

養蠶界도打擊

夏秋蠶掃立一割減

收繭減少深刻?

變態的天候

天候로 第一次夏秋蠶掃立豫想은 四十三萬一千六百枚로 順調를 傳하는것이 그 掃立實數는 桑葉被害로 因하야 全朝鮮的으로 約一割의 減少는 免치못하고 掃立은 三十九萬枚前後로 觀測되다

第一次水害에 잇서는 桑葉被害도 되든 이번의·被害와 關係의 變態的 天候에 減少는 中、南朝鮮六道로 慶北은 一大減產이나 忠北은 樂觀되야 中、北朝鮮이 順調의 關係上 若干增加가 豫想되야 一體一割減의 程度에 그칠것이다 그러나 收繭額은 桑葉不適의 氣候가 連續한 關係上 收繭의 減少가 深刻케될것이라고 한다

豫定이라하며 委員長은 五十二名中五十名은 委員就任을 快諾하얏다한다

製系原料의不足

南朝鮮工場의相當豫想

南朝鮮地方의 風水害는 夏秋蠶의 上簇期에 際會한때문에 桑園의 浸水桑園의 流失等 桑葉은 豫想以下로 不足할모양이므로 半作以下로 觀測되는바 收繭는 이로 因하야 激減하고 南朝鮮地方을 購繭區域으로한 製絲工場은 原料不足이 相當케될것이라고한다

世界原油 昨年產量

最高記錄을突破

【日本石油調查】昨年度의 世界原油產額은 二億二千六百四十七萬二千키로톤으로 이것을 前年度에 比較하면 一千八百二十六萬四千키로톤의 增加이다 從來의 最高記錄인 昭和四年度에 比하드래도 一千六百萬키로톤의 激增을 보혓는데 各產地別產量은 다음과 갓다 (以下單位千키로톤)

	十年	九年
北米合衆國	[illegible]	[illegible]
蘇聯	[illegible]	[illegible]
베네쥬라	[illegible]	[illegible]
羅馬尼亞	[illegible]	[illegible]
이란	[illegible]	[illegible]
蘭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墨西哥	[illegible]	[illegible]
콜럼비아	[illegible]	[illegible]
亞爾然丁	[illegible]	[illegible]
페루	[illegible]	[illegible]
트리니다드	[illegible]	[illegible]
英領印度	[illegible]	[illegible]
波蘭	[illegible]	[illegible]
英領보르네오	[illegible]	[illegible]
日本	[illegible]	[illegible]
埃及	[illegible]	[illegible]
獨逸	[illegible]	[illegible]
에콰도르	[illegible]	[illegible]
이라크	[illegible]	[illegible]
佛國	[illegible]	[illegible]
바렌島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火藥、勞銀昂騰으로 產金採算不利說

◇……鑛山熱에異常!

朝鮮의鑛山熱은 狂熱時代를 一過하야 本格企業時代를 迎하얏는데 最近의 鑛山企業採算으로는 가장 時潮에맛는 產金事業과如함도 一般으로는 採算有利임에不拘코 겨우 採算이맛는 狀況으로되어 이動向은 朝鮮의 鑛山事業將來에 注目되다 한다 即 產金事業에就하야보면

一、金價十三圓臺維持로 從前의 採鑛標準의 十萬分의五、六이 十萬分의一、二로 低下되것

一、勞銀의昂騰、火藥、杭木의高價等이 顯著히影響되고 其他鑛業과鑛業에는 採算不合의것이不少한모양이라한다

產業調查 機關連給

目下統制提唱

朝鮮의產業調查의 調查研究機關에는 現在總督府農事試驗場 各道種苗試驗場 林業試驗場 水產試驗場 中央試驗所 [illegible] 地質調查所等을 各部門別로形態가 整備되엇는데 右試驗調查機關의 機能擴充과 連絡統制問題가 關係方面으로부터 提唱되던바 右은現在의 各部門別機關分立으로는 財源關係上 集中的 繼續的徹底한研究를 行할수업고 工業에 就하야보면 農試 林試 水試 及中試와 關係方面이分立되나 此間에何等의 連絡的統一이업서 이것을 協調連絡케하면 更히效果的調查 研究가可能한 點으로 이것이 主張되는터이라한다

▲調查會準備 朝鮮產業調查會는 繼續하야 殖產局에서 準備가着着進行中으로 二日부터 連續하야 關係各局課議와 參考案을求하고잇서 一兩日中에는이것을終了하고 來十日頃에 產業調查準備委員會를 開催하야 會期와 提議案의 正式決定을보게되엇는바 調查會의開催는 大體十月二十日부터 約四日間에亘할

朝鮮紡績業 輸出로轉換

滿洲南洋方面에

朝鮮內紡績業의 勃興에依하야朝鮮은이미綿布의 輸移入으로부터 輸出로轉換하고特히 下級綿布關係로는 滿洲中國方面은勿論、마니라、南洋方面에까지 新進出을開始키에 至하얏다 今年八月末累計의 貿易表에 對하야보면 今年의輸出은 月額十萬圓乃至十五萬七千二百十圓에 達하고 前年의輸出 二百三十五萬一千圓에比하야 八十萬五千圓의 出增을示하얏다

"세멘트賣止"影響

需要者側이大困境

세멘트聯合會와小野田세멘트의妥協成立以來 朝鮮에서는 各社共히 在荷의減少、前途不透明을理由로 세멘트를賣止하고 小口當用需에對하야만 消極的으로販賣하고잇는데 이때문에 企業官廳과如한것은 繼續土木事業을 續行할수가업고 土木業者도 工事進行에 支障을招來하야 大口需要側은 一齊히困難中인데 官廳方面에서는 目下이對策을 考究中으로 何如間세멘트會社의 如斯露骨的市價昂上策에는 各方面으로부터 相當히 批難하는소리가잇다한다

滿洲對獨貿易

輸入增加를考究

【新京四日發同盟】滿獨通商協定締結以來滿洲國內의 獨逸商社의 活躍이 傳하는데 協定成立後의 六七兩月間의 獨逸商品輸入高는 六月四三二、七五圓 合計一、二〇五、七六二圓에 不過한 一方對獨輸出은 大豆의輸出激增을 보엿는데 同通商協定에는 獨逸은 支拂額의 四分의一을 獨逸商品으로써 充케되어잇슴으로 滿洲國의對獨輸出激增에 伴하야 獨逸商品을 比例하야 滿洲國에 輸入되지안는限獨逸側의 支拂은不動이에 으로되어 이는結局滿洲國政府의 [illegible] 따만히 獨逸商品을 輸入하는 方法을考究코저 滿獨協定運用委員會、外交、財政、實業의 關係當局이 協議하얏는바 獨逸으로부터의 輸入品은 機械、染料、[illegible]等이 主이오 歐米各國으로부터의 輸入品中獨逸商品으로 代替할수잇는것은 今後獨逸品에依하고저 特別한 考慮를하게되어 이것이 具體案에對하야 討議하고 研究를繼續키로되엇다한다

商工聯合改造總會

京城商工聯合會의 改造에關한 臨時總會는 三日 午後三時부터 京城公會堂에서 열린結果 新定款을 承認하엿다 이에 依하야 從來의 個人會員은 自然消滅하고 組合을 會員單位로 聯合會를 組織키로되야 十名의 設立委員으로 新團體인京城商工組合聯合會의 結成에 着手키로되엇다 第一回委員會는四日 午後零時半 京城商議室에서열고 組合의加入勸誘 其他를 協議할터인데、京城府內의商工組合은 現在 二百三十組合가량이 加入케될모양이라고

預金貸出增加

八月末京城組銀

八月卅一日現在京城組合銀行預金貸出狀況은 預金 一億四千三百八十一萬圓으로八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一千六十八萬八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二千四百九十六萬四千圓의 各增加 貸出은 一億七千百六十九萬三千圓으로 八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四百九十四萬二千圓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千八百四萬二千圓의 各增加를 보혓다

朝鮮穀聯改組案

不遠認可될豫定

朝鮮穀物協會聯合會의 改組는目下總督府에서 改組案을 調查研究中인데 七日 穀聯幹事會前後에 正式認可키로되바 新名稱은『社團法人朝鮮穀物協會』로正式決定하고會員은 各協會役員即 全朝鮮組合代表約 二百餘名과 名譽會員(推薦에依한것)十數名으로 維持費는 各協會 負擔으로決定하엿다고

證券所持少減

八月卅一日現在 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所持高는 二億四千三百九萬圓으로 八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五十一萬五千圓減少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千四百八十二萬三千圓의 增加이라고。

米日爲替市勢 [九月三日]

三日의爲替는 賣二十九弗四十九仙 買二十九弗四十八仙

人絹팔프供給

明年上半期不安

人絹聯合會의 規約改正問題로 中小會社의脫退까지는 아닐지를 것갓고 따러서 聯合會生產統制의 混亂을볼것으로생각한다

◇ 統制로 市價도 安定되고 五 [illegible] 끼르리는事情을 取치안흘것은 當然한理致이다 結局 生產統制가 維持되고 供給過剩의 調節도當然히 實勢에 相應케될 것이다。

◇ 近者 팔프의供給不足問題가 떠돈다 그러면 明年의上半期에 對하야는 多少念慮되지만 今年下半期에는 何等憂慮의必要가 업다고 생각되다 卽今年은 人絹팔프가 製紙팔프에 比較하야 採算上 不利하엿든 것이 供給減少의 主因이엇다

◇ 따러서 아프로의 人絹팔프가 製紙팔프採算以上으로 되면 當然히 相當한 量의供給이 될것이며 下半期에 가령 파이바─進出이 잇드래도 別로 팔프饑饉의 念慮를 할것이 업다는 樂觀이잇다

重要商品界事情

經濟寸鐵

○ 大防商工會議所에서는 增稅反對案을 政府에 進言코저 研究中이라는데 그 하나는 婚姻稅라나

○ 老總角 老處女가 더 만허지거나 未屆出 秘密結婚이 만허지지 안흘가?

○ 이왕이면 徹底하게 出生稅까지 받는것이 若何?

○ 이따위 덜 되수작은 집어치고 大資本家의 주머니속을 털어받치도록 하지……

南朝鮮航路滿船

南朝鮮의風水害로 因하야 慶全北部線은不通되엇때문에 朝鮮汽船의三千浦統營釜山線、馬山釜山線은 乘客이 還至하야 每航滿船狀態이라고

取引停止 (九月一日)

▲京城府本町三丁目三五番地獨逸共信洋行本町支店李世澄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一九一番地 萩本京一

經濟界消息

○朝郵一等定期傭船=朝鮮郵船에서는 北朝鮮의 北鮮航路에 [illegible](京濱、北鮮航路에 [illegible])西幸成丸(三七七〇噸)을定期傭船하엿다고

商況 [四日]

株式 上勢一巡 反落

前場下押 今前場은上勢一巡의反動으로 諸株下押이엇스니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七十錢低인 百二十六圓四十錢 日產九十錢低인 八十一圓十錢 朝取七十六圓丁 朝新二十三圓二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一圓六十錢低의 六十四圓六十錢에 低寄後五圓丁 大新六十錢低인 六十八圓九十錢에 低寄이엇스며 日曹七十錢低인 六十九圓八十錢 朝石三十五圓八十錢

後場續落 後場은東京低落에 伴하야 東新百二十五圓五十錢 大新六十八圓三十錢 日產新二十八圓十錢 日曹六十九圓六十錢 北新二十五圓三十錢 拓新二十五圓丁에 떠러지고 不變大引

目前의天井觀

但押目은買場?

大新高를最後로

繼株의 投資買旺盛에 不拘코 惡材料와 [illegible]에 支配되고 投機人氣 極度沈滯되고 東新가튼것은 當所株上場禁止가 威脅까지 [illegible] 事業株에比하야 五、六十圓이나 低位에 잇섯다가 、市勢自體가 根强해진것 2、貿易이 八月下旬大出超로 輸出增의實證을 보인것 等으로 新物九月市勢에 期待를 가지게되고 主力株一齊上放으로 一日好勢를보고나서 昨後場大新七十圓關門突破까지잇섯스나

1、아즉國策、增稅가 決定되지안흔것

2、成都事件으로 因한 日中關係의 今後形勢逆睹難

等에依하야 軟派는 市勢를悲觀的으로적게보고 未底入觀의 實物까지잇는 一方 强氣로서도 高價飛付를 警戒하고 相俟하야 目前天井觀이 생기게된모양이나 大勢로서는 지금까지의 小市勢의 域을버서나서 主力株大市勢로發展할것을 期케될것이라는 말이 有力하다

東新戰興味視

調查會答申如何

九月一日의 東京東新百二十七圓七十錢 三日의 百卄七圓七十錢을 目前天井으로보는모양인데 그러면 얼마까지나 떠러질가? 大勢가이미 九月一日의 上放으로 買轉換인것을 證하는以上 半歲에亘한 民買方針은淸算하여야할일이나 罫線家나通信의보는바는 百二十一圓割이면 다시逆轉되리라고보는 모양이다 今月上旬中에는 取引所制度調查委員會의 答申案이 發表되리라하니或은 이것으로 最後의 一落이 잇슬지도모르나 반드시 百二十圓割이잇스리라고 할수업고 도리혀 案決定으로 惡材出盡이라하야 暴發의 動機가될뜻도하으로 今後의 東新은 興味倍加인 모양이다。

兩株上場提案?

朝鮮取引所에서는 朝鮮製鍊、朝鮮도렛치兩株式을 短期에上場하 [illegible]

期米 瓦落後에 少返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一圓九十二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九十二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八十五錢인 七丁反落을 報하고 二十九圓八十四錢인 八丁低로場을始한後阪地稍漸低移로 七十一錢의 四番同價로 止한것을寄付하야 七十六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少返 後場은 二十九圓八十錢에 四丁高로始場後 八十五錢四本同價로 六節八十三錢이고 八十五錢에止場하다

颱風念慮一掃

市勢도一段低

다섯번재 發生하엿든 颱風은昨 [illegible]

市場六感

(株)……九月一日 主力株에飛火하야 一齊好勢를 보한듸를 니어 昨後場에는 大新이 七十圓關門突破로 最後의 上勢를 보인것으로 目前天井이되는 세음인지 今前場은 諸株下押 ▲그러나 이것으로써 逆轉이라볼은것은 東新가튼것은二、二六事件以來 모든 惡材料와 最惡의境遇까지 實驗한것일뿐아니라 生產、財政 모든方面으로 日本全體가 膨脹되어가는판이니 秋市勢에 큰期待를 가지고 待機함일

(米)……北東으로 進行하든 颱風은 北北西로 進路를 變更하야 朝鮮에는 何等의 影響이 업다고▲이번의 颱風만은 無事한모양이나 今後가 또問題▲開花期에 直面되어잇는今日의 朝鮮天候가 降雨又는陰雨를 繼續中임으로 그被害가 얼마나 宏大할것을可期▲朝鮮의凶作은 既定事實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니나 日本內地稻作이 平年作以上인듯確實▲그렁으로 日本內地와 朝鮮米價와의 將來 [illegible]

當限依然頑强

正米의引締로

今月에入한後 三十一圓七十四錢까지 昂騰하엿든 當限은今朝三十一圓五十錢臺로 反落하엿스나 中先에比하야는 顯著히底堅味를 添하야 二百丁內外에까지 縮少하엿든當中의鞘가 約二百三十丁으로 擴大되엿다 要하면 中限은舊米의 出廻가旺盛치못하는 時代에納會되는限月이나 그러나 新米의氣分을 胚胎하고잇슴으로 低落할素質이잇스며 當限으로最後端境期인 今月로써 終幕을告하게될으로 正米의事情如何에依하야 左右될것이事實이다 그런데 依然高價를 維持할뿐아니라 內地의移出이 稍漸活氣를帶하야 算市場의買方이어데까지 受取하려하는態度인고로 容易히滑落을 許하지안흘것갓다 客月에納會되 [illegible]

今日財界 (四日)

◆米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正租(仁川)[illegible]

◆株 朝新 東新 日產 [illegible] 大阪綿糸 大阪綿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反落狀態이 [illegible]

大阪國債市場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賣方=汐政、東京乘替、地場軟派、北國乘替、中東側 ▲買方=朝鮮側、豪商側、地場强氣

各地正米

京城不變 期米低이나마賣物薄으로 保合이엇다 ㊤二等三十一、七〇 四等三十一、四〇 一等白米一三三、〇〇

仁川保合 期米의反落을移하고도 移出側의買埋와 當用買로保合이오 在庫의急激한減少로 所持는 去益高張이엇다 ㊤三等三十一、七〇 四等三十一、四〇 一等白米一三三、八〇

釜山不變 舊態依然하야取引은當用必需買가 行할뿐이오閑 ㊤三等三十一、七〇 四等三十一、四〇 一等白米一三三、八〇

大邱反落 不作人氣로써所持의 賣止的態度가繼續되나 期米氣崩에 追隨하야 唱은十五錢反落이엇다 ㊤三等三十一、一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一三三、四〇

群山續落 繼續하는降雨로 出廻杜絕狀態이나 期米의漸落과 日本內地入注不振으로 市況은活氣가乏하고 更히十錢續落이엇다 ㊤三等三十一、七五 四等三十一、六〇 一等白米一四、〇〇

木浦少緩 所持側의低價賣物薄이나마 期米反落으로 人氣不透明이오 氣配十錢引緩이고 取引은殆無이엇

金融 (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外國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雜穀 / 仁川正米大豆 / 京城綿絲布市勢 / 京城綿布 / 豆粕肥料 / 滿洲商況 / 日本麥粉市勢 /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四日)

◆朝取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大阪短期 ◆朝取短期賣買高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 ◆大阪市中在米高 ◆各地正租市價(單位錢) [illegible]

商品 (四日)

◆大阪綿糸 ◆大阪人絹 ◆橫濱生糸 ◆各地人絹 ◆大阪砂糖 ◆外國砂糖 ◆外國期米 [illegible]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金益商店 光皿 株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株式 京城本町 期米 仁川本町 玉 柳來恒取引店

金.銀.白金 德 代金引換販賣 地方注文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